

HUMANITAS COLLEGE 2024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발명하고 문명을 혁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는 스스로를 발명하는 탁월한 개인이자, 타자와 더불어 문명을 혁신하는 지구적 실천이다.



1

Welcome to Humanitas 2024

- 04 총장 입학 환영사
- 08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인사말

2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 14 후마니타스칼리지 소개
- 16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 17 세계시민교육
- 18 글쓰기
- 19 독립연구
- 20 예술·체육 교과
- 21 배분이수·자유이수 교과
- 22 고전읽기
- 23 대학영어 | 특강 프로그램
- 24 마이크로디그리
- 25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3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 28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 36 독립연구 우수 사례
- 44 글쓰기 우수 사례
- 48 독서공동체 아레테
- 49 대학생위원회
- 50 예술축전
- 51 교양교육연구소·실천교육센터
- 52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 53 미래혁신원
- 54 글로벌봉사팀

4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 58 후마니타스에 바란다
- 66 후마가 후마에게
- 74 후마니타스 포럼

5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 80 경희의 도전과 성취
- 88 경희를 빛낸 경희인
- 92 기부문화

6

1949~2024 학문과 평화의 75년

- 96 경희 창학정신
- 98 경희의 역사
- 104 세계평화운동
-
- 108 Campus Map

Welcome to Humanitas

2024

1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후마니타스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문명 전환을 이끌어가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복합 위기가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이때,

대학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붙잡아야 한다.

그 질문에서 미래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하는 창조의 길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의 첫 출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은 창학정신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기 위해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 지구적 존엄을 추구하는 길에 경희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숭한 장애물을 만나고, 각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경희 역시 지난 75년 동안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성공과 도약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경희 역사를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희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경희정신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敢鬪)하는 청년의 호연지기로서 ‘진취적 기상’이 자리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평화와 문화복지 성취의 기틀을 위해 보다 건설적으로 단결하는 ‘협동적인 건설’이 있습니다.

우리 경희의 교육 목적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문화복지사회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양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경희
역사를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희 구성원의 성장과 전 지구적 커뮤니티의 행복을 촉진하는 최고의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학을 선도하는 경희의 ‘네오르네상스적인 부흥’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론 불가능에 도전하라, 과감하게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때로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다른 대학이 가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추수(追隨)하는 것이 아니라 경희만이 내세우는 고유한 가치와 철학과 방식을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의 전 구성원이 모두 함께 자신이 맡은 직무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인간미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고귀한 성취 경험을 누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17대 경희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저는 경희의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해 학생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대학 총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점하면서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학 내에 도전과 실험의 문화를 촉진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더 나은 ‘대학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식과 행정, 물질적 자원을 충분



히 확보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성원에게 심어주어 신뢰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현재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탁월성’,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 ‘유무형의 자원 확보’ 등의 관점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수준의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학의 전체 목표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학 운영을 통해 비전, 가치, 목적, 목표, 추진 전략, 이니셔티브 등의 전략적 경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더 수준 높고 더 다양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길에 신입생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미래학자인 게세코 폰 튀프케는 『두려움 없는 미래』에서 “진정한 미래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태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맞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각종 기아와 질병과 전쟁 등 여전히 다양한 전 지구적 난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충, 균, 쇠』의 저자인 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적한 네 가지 난제인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인구 폭증, 불평등’ 역시 현재진행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류의 미래 앞에 닥친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 경희 구성원이 선도적으로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 나은 경희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 창조의 허브공간, 경희대학교

우리나라는 현재 단순한 제조 산업 중심의 국가에서 탈피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문화와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창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롭고 희귀하고 독특한 창조문화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으며, 지식 생산을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대학은 이미 ‘창조 권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창조의 핵심인 ‘기본 개념’ 위주의 맥락 중심 교육과 함께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처럼, 융합적 사고와 교육을 통해 지식과 창조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제는 경희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에게도 과학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태도입니다.

며,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의 학생에게도 인문학적인 교육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융합교육을 실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부 3~4학년 학생에게도 연구과제 수준의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기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경희 동문을 포함한 경희 출신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 평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경희 구성원 각자의 아름다움이 우리 학교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를 문화창조의 허브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심미적인 공간, 창의적인 공간, 지구적 커뮤니티의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지지하며, ‘학문과 평화의 새로운 도정’에 신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구호처럼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의 앞에 당도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마니타스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경희 새내기 후마니타스 여러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답이 있는 문제’에 익숙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여러분을 교과서 중심의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었다가 시험지 앞에서 꺼내 쓰는 수동적 학습자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대학(大學; university)은 큰 배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큰 배움은 텍스트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세계는 대학의 존재의의를 물으면서 미지의 앞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을 배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과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학습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명목상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뉘어 있지만,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 줍니다. 교양교육은 자신의 전공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분야와 어떻게 소통하고 제휴하며 융합할 수 있는지, 다른 전공과 가치관을 지닌 타인을 만나 어떻게 스스로를 상대화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을 기치로 2011년 출범했습니다. 아시아 10대 교양 대학으로 선정(<Forbes>, 2015)되는 등 국내외 교양교육의 탁월한 전범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Humanitas’는 스스로를 발명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을 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과 언어, 국적, 소속, 문화, 이념 등 모든 경계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복철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내공 있는 교양인’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공 있는 교양인,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간극, 전문적 지성과 시민적 덕성 사이의 괴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전과 문명사적 전환 및 사회의 격변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지식을 다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의 틀을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사고 방법의 획득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지구적 위기에 응전할 수 있는 지성과 지혜 및 실천 능력을 키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내공 있는 교양인’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 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가 대변하는 문명 전환기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개인적 존재로서 나는 나의 인생 항로를 어떻게 운항해나갈 것인가? 등의 질문 속에서 길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 미원 조원식 박사는 70여 년 전부터 이례적인 문명사적 위기와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 혼란스럽게 교차하는 전환 시대를 예견하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갈등이 인간문명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유엔 총회를 통해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세계후마니타스회의가 수여한 ‘인류 최고 영예의 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을 준비하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그의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눈을 들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미래,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미래를 꿈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미래의 설계자 되길

2024학번 새내기 여러분!

먼저 '경희인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짧게는 고등학교 3년이지만 길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12년의 시간 동안 정해진 교육 매뉴얼 속에서 마치 관문을 단계별로 통과하듯 긴 시간을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경희 가족이 된 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탄생과 함께 출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탄생'과 '출발'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사회적 신분 변화가 된 것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대학의 신입생들도 새로운 출발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경희대 신입생들은 분명 다른 차원의 탄생과 출발을 하게 될 것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경희인이 되면서 동시에 '후마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후마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여건, 그리고 교수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여러분보다 먼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경험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여러분의 선배가 본인이 경험한 후마의 교양교육에 대해 "전공이 새의 몸통이라면 교양은 새의 날개"라고 요약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오늘날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환경을 두고 보면 대학에서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협하지 않고 '취업교육'이나 '실용교육'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교양교육은 전공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교육을 지원합니다. 어떤 점에서 교양교육은 이미 그 자체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취업교육이자 실용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준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국제캠퍼스 학장

여러분은 경희인이 되면서 '후마인'이 되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여러분에게 능동적 적응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양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미래의 실천인, 직업인, 전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구적·기능적 이성만이 지배하는 닫힌 사회의 '영혼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 더 나은 직업인이자 전문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서너 개의 직업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선택과 전환의 순간이 올 때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능동적 적응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입니다.

한국의 다른 대학들은 교양교육에 관한 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넘사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학들이 우리의 '따라쟁이'를 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위상은 이미 국내 대학의 평가를 넘어 '아시아 10대 교양 대학'으로 <포브스(Forbes)>지가 2015년도에 선정한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후마니타스 가이드북』은 후마의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그래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권의 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입학 후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꿈과 미래가 신기루가 아닌 '지금 여기'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 다양한 학습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벌써 그려집니다. 이제 곧 새봄이 오면 강의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가열차게 토론하며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2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세기 전 영국의 작가가 남긴 격언이다.
각종 재난이 일상화하는 ‘뉴노멀’ 시대,
교육과 학습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꾸밈지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 견고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목표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재도약하는 후마티나스칼리지

글로벌 교양교육의 미래비전 재정립, 필수교과 학생 수 25명
국내 최초 ‘세계시민교육’ 개설, ‘주제연구’ 신설
인공지능의 시대,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적 난제에 적극 대응

2011년 출범 이래 대학 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쇠신해 온 후마티나스칼리지가 미래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재도약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목표, 교과 구조, 수강생 수, 강의 방식 등을 새로 설계, 운영하고 있다.

후마티나스칼리지는 2020년 이후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왔다.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몰고 오는 불확실성이 겹쳐져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의 와중에서도 후마티나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기존의 일방향이 권위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후마티나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인식을 넘어 대안적 사유의 능력을 키워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실천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인재상도 구체화했다. 기존의 인재상인 ‘탁월한 인간,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전환 디자이너’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창의력, 상상력, 협동력을 결합하는 ‘실천인’ △우주적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세계시민’. 이것이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인간, 후마티나스다.

후마티나스: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쇠신하는 인간

후마티나스(humanitas)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후마티나스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티나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정립했다.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후마티나스다.

후마티나스는 인간 그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쇠신함으로써 미래 문명을 발명해나간다. 교양교육이 ‘교육의 최고 수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적 장식품이 아니다. 나를 ‘더 나은 나’로 변모시키고 형성해나가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통합적·비판적·윤리적 사고 능력,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적 역량이 곧 교양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높이’이다.

후마티나스 교양교육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 교육,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 교육,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 교육이다.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융복합적 사유는 다양성, 상호의존성, 복잡성 등을 아울러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상상과 창조의 가치를 육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

께 이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실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큰 질문, 즉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다. 우리는 평생 이 두 개의 본질적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를 성찰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식인·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마티나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교과 수강자들은 매 학기 500개가 넘는 모둠을 만들어 강의실과 사회, 배움과 실천, 지식과 문제 해결을 연결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후마티나스 시민교육은 사회봉사, 참여학습, 현실 개선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천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적 소득은 이런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2019년부터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무의미하다. 학부생의 지적·정서적·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나가는 ‘내적 균형과 견고성’의 토대를 길러주는 데 있다. 삶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겨주는 온갖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다.

‘교양교육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2024년 후마티나스칼리지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기본 틀을 재조정했다.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과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 사유와 표현능력을 키우는 ‘글쓰기(<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소통 역량으로서의 ‘영어(<대학영어>)’ 등 6과목을 공통 필수교과로 지정했다. 여기에 ‘생명·우주·인간’, ‘분석·추론·논리’, ‘상징·문화·소통’, ‘사회·공동체·평화’, ‘지능·정보·미래’ 등 5개 주제 영역별 배분이수교과, <독립연구>·예술·체육, 고전읽기 분야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가 개설되어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인간, 세계, 문명, 우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개인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세계와 시민> 교과에서 그 목표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계와 시민>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신종 질병 등 글로벌 난제를 포괄하는 교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외에서 경희대가 처음이다.

후마티나스칼리지가 재도약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 강의 규모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가치 탐색> 등 필수교과의 강의당 학생수를 기존 40명 내외에서 25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형 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대형 강의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역진행(거꾸로) 학습’ 등 새로운 교육·학습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후마티나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술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가, 지구사회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후마티나스칼리지는 교학상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다.

필수교과 ‘황금의 삼각형’ 인간, 세계, 문명의 종합적 이해

기존 ‘시민교육’을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개편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와 유기적 결합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주축인 필수교과가 ‘황금의 삼각형’을 구축했다. 기존의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과 2019년 신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 세계와 시민>, 그리고 2017년 개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I: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인간과 문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인간의 가치 탐색>은 동서양 문명을 가로지르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구성해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인간 자신을 발명해왔는가? 인간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부여해왔는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와 시민>(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한 것으로 근대성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요건을 미래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세계와 시민>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붙잡는다. 근대문명은 어떻게 그 이전 문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으며 어떤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가? 일국 시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다음 질문을 공유한다. 과학의 기원은 무엇이며 과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발명해왔는가? 우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명과 생명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의 미래와 과학의 미래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스스로 사유하고 탐문하는 교과, 발표와 토론 중심 수업

세 필수교과로 구성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강의 당 학생 수가 25명 내외로 소대화함에 따라 읽기와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텍스트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 가치와 의미에 대한 동서양의 사유, 문명의 방향을 바꾼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와 다차원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과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발명해온 동물이다. 인간은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철학자를 발명했고 ‘사실’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과학자를 발명했으며 ‘의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시인을 발명했다.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인간을 발명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오랜 기간에 펼쳐온 ‘가치 추구’의 중요한 장면들과 만나는 동안 학생들은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민주주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교 분리, 과학기술 등 근대의 성취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는 ‘지금·여기의 나’를 재발견하는 것은 물론 나의 미래, 사회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기획하는 폭넓은 사유 지평으로 확대된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교과의 최종 목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통과한 학생들이 ‘나와 세계’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

전세계 대학 최초 전교생 대상 개설 글로벌 난제를 ‘우리의 문제’로

‘일국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지평 확대
학생들 스스로 과제 설정, 현장에서 모둠 활동



2011년 출범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해온 ‘시민교육’이 2019년 ‘세계시민교육’ 교과로 거듭났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중핵교과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 확대한 것으로, 전 세계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다.

기존 ‘시민교육’이 일국 시민성, 즉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을 강조했다면 세계시민교육 <세계와 시민>은 말 그대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 세계시민은 근·현대 문명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각성된 주체이자,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문명을 건설해나가는 실천적 주체다.

경희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한 시민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색이 대학 강의실은 물론 캠퍼스 밖 세상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획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자임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매 학기 500여 개 모둠이 ‘세상 속으로’

대학이 길러내야 할 ‘더 나은 인간’은 다름 아닌 ‘책임 있는 시민’이다. 책임 있는 시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비판적 민주 시민,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선·공감·배려·봉사·연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공동체 성원,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이 그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실습도 아니다. ‘실천’이다. 시민교육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진이 진행한다. 교재 『세계와 시민』을 통해 시민의 역사, 시민의 현대적 의미 등 이론을 공부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가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주제와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없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산 공부’의 폭과 깊이는 각별하다.

학생들은 3~5명이 팀을 이뤄 대학과 관련된 작은 주제를 선택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사회적·지구적 이슈를 탐색하기도 했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은 매 학기 2,500명에 이른다. 이들이 500개 안팎의 팀(주제)을 구성해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그간 그린 캠퍼스 만들기, 독거노인 돌보기, 청년실업, 외국인과의 소통, 생태·환경 문제,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고들었다.

“교재는 ‘교과서’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의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재를 통해 개인과 전체를 보다 크고 넓은 시야(視野)로 통찰한 다음,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상상해야 한다. 이제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지구(우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체적 삶과 대면하기’에서 학술에세이 쓰기 역량 강화로

교재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 『성찰과 표현』으로 개정
<주제연구> 신설, 다학문적 사유 능력 강조



대학 신입생에게 글쓰기는 대부분 ‘생애 최초의 글쓰기’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글쓰기와 처음 마주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글쓰기가 두렵고 불편하다. 후마니타스 글쓰기교과는 글쓰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주는 데서 출발한다.

글쓰기교과도 2020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에 발맞춰 교과명을 바꾸고 교재를 개편했다. 기존의 『나를 위한 글쓰기』(글쓰기 1)가 『성찰과 표현』으로, 『대학글쓰기: 세계와 나』(글쓰기 2)는 『주제연구』로 바뀌었다. 개편된 <성찰과 표현>은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이고, <주제연구>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글쓰기다.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의 확보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은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삶을 다양한 주제로 성찰하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초 글쓰기는 대학 생활과 사회진출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장된다.

기초 글쓰기는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잊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은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다음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와 같은 보다 큰 주제를 소화하며 시계(視界)를 넓혀간다. 이 과정에서 발상과 관찰, 비교와 대조, 서술과 비유 등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 기초 글쓰기는 ‘5단락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사유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5단락 글쓰기다.

기초 글쓰기를 수강한 박민지(국문과 11학번) 학생은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글을 마저 써내려간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는 글을 쓰면서 진정한 성년으로 거듭난다.

인간과 세계의 ‘위기’를 성찰하고 ‘전환’을 모색하다

<주제연구>는 학술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찰과 표현>에서 익힌 기본기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교과명이 말해주듯 ‘주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기와 전환’이란 대주제 아래 인간, 세계, 지구 세 영역에서 소주제를 선택하되 최소 3개 학문 분야의 관점을 동원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비중을 둔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또 다른 특징은 강좌당 학생 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 수가 <성찰과 표현> 30명, <주제연구> 20명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외국 유수대학의 글쓰기 강좌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강생 수가 적을수록 교수의 첨삭 지도와 발표와 토론, 모둠 수업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실도 개설해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학생들끼리 합평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글쓰기 역량을 키워간다. 글쓰기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교과와 통합적 사고력,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활동, 독립교과의 자율적 탐구, 예술·체육교과의 감성 계발과 어우러져 학습 효과가 한층 배가되고 있다.

“원하는 강의, 내가 만든다” 자율성, 탐구력, 협동심 키우기

학생 스스로 과제 설정,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 제안으로 신설



“전공교육이 새의 몸통이라면 전공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배운 가치들이고 다른 날개는 그 가치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브라운대학의 경우인데요, ‘독립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총장과의 대화’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교과 신설은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제캠퍼스에 이어 서울캠퍼스에서 총장과 학생들이 마주 앉아 ‘미래대학 리포트 심층토론’이 열렸다. 주제는 ‘문명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학과 박예지 학생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조인원 총장은 “독립연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6년 봄 학기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탐구력, 협동심을 북돋워주는 독립연구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전공을 불문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립연구를 본격 시행하는 것은 경희대가 처음이다.

연구, 창작, 봉사, 창업 등 모든 분야에 열려 있어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개인이나 모둠별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설계하고 이를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수행하는 정규 교과다. 독립연구1과 독립연구2로 나뉘며, 독립연구2는 독립연구1을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학 중(개학 전) 개인 또는 모둠별로

연구 과제를 정하고 지도교수를 섭외한다.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한 뒤, 개학 초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지도교수에게 ‘신청서 및 계획서’를 최종 승인 받아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학기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독립연구를 수행하고, 학기 말에 지도교수에게 ‘활동 보고서’ 및 ‘활동 결과 실적물’(논문, CD 등)을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해 학생의 활동보고서와 실적물을 행정실에 제출한다. 독립교과는 교과당 2학점이다. 독립연구 대상(영역)은 다양하다. 연구(학습), 실험, 실천, 창작, 참여, 창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독립연구 교과 설계와 지도교수의 예다. △에머슨의 초절주의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유정완(영문과) △한국비교철학사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전호근(후마니타스) △구술 생애사(노인 자서전) 활동(2~3명 모둠)·시창작 고급과정(1명)·미디어글쓰기, 지도교수 이문재(후마니타스) △창업 및 시민사회 활동 관련(NGO/NPO 만들기·협동조합·소셜벤처·농업 운동·사회활동가·글로벌 활동가 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조사 연구 및 세계 참여(개인·모둠), 지도교수 우기동(GSC) △전공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친환경 도시재생·사회적 다큐멘터리 제작·거리공연 기획 등)(개인·모둠), 지도교수 우대식(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의 독립연구는 2018년부터 대학 내 모든 전공 학과로 확대돼,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넘어 ‘경희 교육’의 새로운 특성이자 학풍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잃어버린 감수성’ 되찾아 ‘온전한 청년’으로 재탄생하다

입시지옥에 갇혀 있던 감성과 체력 일깨워
‘지성과 몸의 조화’ 추구하는 후마니타스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을 주도한 것이 ‘이성과 과학’이었다면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몸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체육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온전한 감성의 회복을 추구한다. 숨 가쁜 성장기에 입시에 몰두하면서 신체의 성장과 감성을 억눌러온 청년들이 감성을 일깨우고 몸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 및 전시 교과, 매년 ‘후마니타스 예술제’ 개최

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창의성을 개발해 자기만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체육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몸과 정신이 하나 되는 ‘인문체육’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교과는 합창, 악기 연주, 무용, 스포츠댄스, 판소리 등 공연 예술 외에 회화, 사진, 디자인, 영화 등 시각 장르에서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공연예술 및 전시 과목 수강생들은 매년 가을 열리는 후마니타스 예술제 무대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체육교과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주말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요트·승마·스키 등의 교과가 인기가 높다. 요트는 강의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주말에 한강으로 나가 3일간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승마 수업도 주말 또는 종강 직후 2박 3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여름철에는 수상스키와 윈드시핑,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합숙을 하며 설상 스포츠를 연마한다.

대형 사건사고, 각종 전염병, 태풍과 지진, 기상이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까닭에 서인지 <응급처치 및 전문 관리론> 과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응급 상황 3단계에 대처하는 요령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시행 방법을 익히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안전교육(수상안전법·산악안전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해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체육교과 중 최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과목은 <토탈 컨디셔닝>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대학 입학 후 변화된 일상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초체력을 높이고,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며, 나아가 자신만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토탈 컨디셔닝은 졸업한 이후에도 각자 지속해야 하는 ‘평생 과목’ 중 하나다.

예술교과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레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새롭게 대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 레슨’ 형태로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함께 긴장하고 귀를 기울이는 협업 형태의 새로운 레슨을 체험할 수 있다. 학기 말에는 수강생들이 모두 무대에 오르는 ‘종강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향 연주자가 직접 강의실을 찾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음악교과,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적 체험을 통한 교양예술 프로그램은 지성, 감성, 영성이 조화를 이뤄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생명, 우주, 인간’에서 ‘지능, 정보, 미래’까지

필수교과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배분이수교과
예술·체육 분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도 풍성



배분이수교과: 9학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배분이수교과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과 글쓰기(<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등 필수교과와 내용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한 축을 이룬다. 배분이수교과의 5개 주제 영역은 인간, 사회, 자연, 문화, 예술, 세계,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표 참조), 총 16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각 과목은 3시간 3학점이며, 졸업하기 전까지 5개 영역 중 3개 영역(9학점)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배분이수교과는 단순히 많은 수의 교양과목을 산만하게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 연계의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 필수교과에서 거론된 핵심 주제가 ‘생명’과 ‘우주, 분석과 추론, 상징과 문화, 사회와 공동체, 논리와 소통, 평화와 미래, 지능과 정보’ 등으로 심

화, 확장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윤리적 실제’, ‘미래를 질문하는 예술’, ‘기술발전에 변화하는 경영’ 등의 교과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여성학, 인류학, 도시학 등으로 학문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자유이수교과: 100개 내외 강좌 개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공 또는 취미생활과 관계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이수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100개 내외의 강좌가 개설된 이 교과는 외국어, 체육, 예술 분야의 특강, 창작 및 실기,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콘텐츠 제작, 디자인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실용과목도 제공된다. 학생들의 자율적·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독립연구 1, 2>도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되어 있다.

배분이수교과: 5개의 학제적 주제 영역

Distributional Requirement Courses: Cross-disciplinary Thematic Categories

- 1 영역 **생명·우주·인간(Life, Universe, Mankind)**
‘생명의 그물망’, ‘마음의 탄생: 뇌, 의식, 마음’, ‘우주: 별을 잇은 그대에게’ 등
- 2 영역 **분석·추론·논리(Analysis, Reasoning, Logic)**
‘큰 맥락에서 사고하기: 시스템다이나믹스’, ‘통계의 진실과 오류’, ‘무한의 힘’ 등
- 3 영역 **상징·문화·소통(Symbol, Culture, Communication)**
‘가면의 축제: 동서양 연희의 문명사’, ‘공감의 인류학’, ‘미디어아트와 문화’ 등
- 4 영역 **사회·공동체·평화(Society, Community, Peace)**
‘관계를 읽는 시간’, ‘두 얼굴의 인류사: 전쟁과 평화’, ‘놀이를 통한 세상읽기’ 등
- 5 영역 **지능·정보·미래(Intelligence, Information, Future)**
‘인류역사를 바꾼 첨단재료’, ‘빅데이터와 스포츠산업’, ‘SF영화의 상상력: 미래의 평화와 윤리’ 등

* 총 5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선택, 각 과목 3시간 3학점

논어에서 다윈, 황순원까지 동서양 '지혜의 샘'과 만난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또 다른 핵심교과
지성의 최고봉과 대화하며 '더 나은 미래' 모색



고전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며 상상력과 창조성의 샘 없는 자극제다. 인간을 키우고 인류문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온 동서양 주요 고전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며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구체적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의 책무 가운데 하나이자 교양교육의 존재 이유다.

전 학년에 개방, 사유의 확장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고전읽기'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수교과와 배분이수교과 수강생들은 청소년기에 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전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고전읽기' 교과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고전 연구를 시도한다. 고전읽기는 개인이나 모둠이 독립 연구 교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고전읽기'는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고전 텍스트를 교재로 한다. 전 학년에 개방돼 있으며, 한 학기 동안 인류 지성사의

최고봉과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나'와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전읽기'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가로질러 인류문명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준 저작물 중심으로 교과가 구성된다. 그리스 비극, 대학·논어·맹자·중용, 서서, 셰익스피어, 자본론, 퇴계, 정약용, 박지원, 황순원, 김수영,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칼 세이건 등 40개 내외의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목당 3시간 3학점이다.

수강생들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서양문화의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노자, 장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내부 모순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철학의 고전이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순원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우리 대학 국문과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경희문학'의 큰 스승이다.

고전읽기 개설 교과: 독립연구로 '깊이 읽기' 심화 가능

삼국사기	치누아 아체베(아프리카)	카뮈	찰스 다윈	맹자
삼국유사	마르케스(라틴아메리카)	카프카	토마스 쿤	대학, 중용
한비자, 목자	프란츠 파농	프로이트	애덤 스미스	밀란 쿤데라
이규보	리처드 도킨스	오비디우스	톨스토이	무라카미 하루키
박지원	에드워드 사이드	불경	괴테	헤르만 헤세
막스 베버	염상섭	코란	보르헤스	초급 고전한문
사르트르	김수영	인도신화	울곡	초급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나쓰메 소세키	동양신화	퇴계	영어로 읽는 한국고전
장 자크 루소	단테	비트겐슈타인	논어	황순원

'맞춤형 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 더 나은 세계시민 역량 강화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에 걸맞게 <대학영어>를 2011년 출범 이래로 필수교과(3시간 2학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 영어'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비판적 사고력과 지도자적 감수성의 신장' 등 다재다능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 영어>는 배치고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의 향상을 전제로 학생들은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

고 작품 전시와 발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동서고금의 이슈를 넘나드는 '텍스트 깊이 읽기'를 통해 영어 작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영어 글 읽기의 즐거움을 체화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Beginner'는 문법과 기본 회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진행되며, 'Elementary'는 초급 단계의 문형과 회화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Intermediate'는 주제별 토론과 더불어 영어 글쓰기 발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Advanced'는 글로벌 이슈 토론, 주제별 토의, 에세이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강 프로그램

'전환 설계'의 최전선, 경희의 '명품 특강'

매년 9월 PBF 학술대회, 세계 석학 초청 강연



신입생들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와 마주함으로써 후마니타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심화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현실, '나와 세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특강은 한 학기 동안 2~3개 학문 분야의 주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시야를 학문 분야 밖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인의 사회적 책임', '대학생들이 오해하는 기업의 인재상', '자기와의 연대', '세계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한국경제의 현실과 미래' 등을 주제로 설정한다.

2017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PBF)' 기간에는 벨벳혁명과 촛불시민을 비교 분석하며 세계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2018년에는 빙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와담스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초청, '얼음 없는 북극'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경희는 매년 세계평화의 날(9.21)에 즈음해 개최되는 PBF 국제학술회의에 세계적 석학과 싱크탱크를 초청, 지구적 난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희의 명품 특강을 대표하는 석학이 슬라보예 지젝 교수다. 2012년 국제캠퍼스에 석좌교수(ES)로 초빙된 이후 매년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로마클럽 회원인 어빈 라슬로 박사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고 2017년에는 장하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미래지식 전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2010년 이후 이매뉴얼 월러스틴, 프레드 블록, 프레드 달마이어,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적 석학이 경희 캠퍼스를 찾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 작지만 큰 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반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문예창작, 예술체험 등 실무 능력 함양



경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신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2학년도 2학기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신설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자격을 위한 최소 단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이다.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다. 학생들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며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어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2022년 신설된 3개의 마이크로디그리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SW 기술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제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마이크로디그리' 등이다.

2024학년도에는 2개의 마이크로디그리가 신설된다. 문예창작과 출판편집 등 실용적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 미술과 음악 등 예술 체험 활동과 능력을 강화하는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가 개설된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로 발돋움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작지만 큰 마이크로디그리'는 계속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분	소개	이수내역	진로와 전망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SW 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제공 - 학생들(특히, 비전공학생)의 AI/SW에 대한 이해를 높임	후마니타스칼리지의 SW 교양 강좌로 지정된 5강좌 중 3과목 이수	- AI/SW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해 전공 분야와의 융합 사례를 도출 - AI/SW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에 따라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AI 기초 교육 제공 -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AI 코딩 교육 제공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AI 기초영역', 'AI 코딩영역', 'AI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인링 기초기술, 인공지능(기계학습) 기법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SW 기초 교육 제공 - 소프트웨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SW 코딩 교육 제공 - SW 심화 교육을 통해 SW 기초 교육과 SW 코딩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SW 기초영역', 'SW 코딩영역', 'SW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소프트웨어적 사고방식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네트워크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4학년도 추가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명	교과목명	이수기준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시 창작 교실(3)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소설 창작교실(3)	
	시나리오 창작 교실(3)	
	르포르타주: 가려진 세계의 보고서(3)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출판 편집 교실(3)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현대미술 라운드테이블(3)	
	움직임과 소통(3)	
	오케스트라의 오늘(3)	
	우리 가락으로 만나는 세상(3)	
후마니타스 예술특강(3)		

* 마이크로디그리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수체계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배분이수교과와 자유이수교과 간 영역 변경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이수영역으로 인정 가능

2024학년도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 2024학번 기준(2023학번 이전은 반드시 경과조치 참조)

구분	영역	과목명	이수 학점	이수 학년	비고
필수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1	
		세계와 시민	3학점	1	
		빅뱅에서 문명까지	3학점	전학년	
	글쓰기	성찰과 표현	3학점	1	1학년 필수 <주제연구의 선수과목>
		주제연구	3학점	2	
	영어	대학영어	2학점	1	3시간 2학점
학점 소개			17학점		
배분이수교과	1. 생명·우주·인간	5개 영역 중 3개 영역 선택	9학점 이상	전학년	각 과목 3시간 3학점
	2. 분석·추론·논리				
	3. 상징·문화·소통				
	4. 사회·공동체·평화				
	5. 지능·정보·미래				
학점 소개			9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체육	-	3학점 이상	1	
	예술·창작				전학년
	자유이수 기타				
학점 소개			3학점 이상		
교양 이수 학점			29학점 이상		최대 56학점까지 교양 학점 인정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대학영어>는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다.
- 글쓰기교과 <주제연구>는 2학년 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교양교육 과정은 필수교과 17학점, 배분이수교과 9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기본 이수 학점을 모두 합한 29학점 이상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 배분이수교과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자유이수교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기 계발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정이므로, 재학 기간 중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독립연구 1, 2>(각 2학점) 과목은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된다.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3

세계시민교육 현장 활동은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인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간다.
'독립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둠 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협동심을 키우고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립연구는 학문 분야의 빈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사제 관계도 돈독하게 한다.



다인종·다문화 시대, 상생을 향한 두드림 외국인이 겪는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해소해야

앱 '에브리타임' 내
유학생 정보 게시판 개설, 정보 공유
“외국인 유학생 불편 해소 위한
관심 이어나갈 것”

참여 학생

- 강민주 간호학과 23학번
- 공민지 간호학과 23학번
- 이나경 생물학과 20학번
- 임찬빈 작곡과 23학번
- 최성환 경영학과 23학번
- 현지는 지리학과 22학번

20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4%에 이른다.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5%를 넘어서며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입 외국인의 빠른 증가세와 달리 이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민자들과 공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강민주(간호학과), 공민지(간호학과), 이나경(생물학과), 임찬빈(작곡과), 최성환(경영학과), 현지는(지리학과) 학생이 결성한 'KHU넥트' 팀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에 접근하고자 했다. 삶의 구체적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주목하기로 한 것이다. 공존과 상생, 인식과 처우, 제도와 정책 등과 같은 거대 담론만큼이나 구체적인 상황 속 개별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는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은행 앱 이용 가장 어려워”

2023년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18만 2천여 명. 20년 새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교육부는 2027년 외국인 유학생 수 30만 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수한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증대 등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7,500여 명으로, 국내 총 유학생의 약 4.1%, 경희대학교 총 재학생의 약 17.5%에 달한다. KHU넥트 팀원들은 캠퍼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쇼핑, 배달, 지도, 은행 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비대면 서비스 사용을 주제로 삼았다. 한국인들에게는 간편한 앱 이용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불편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글폼을 활용해 6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앱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송금 한도, 등록금·주거비 이체에 어려움 겪어

KHU넥트 팀원들은 은행 앱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명의 유학생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송금 한도로 인해 등록금이나 주거비 등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 일정 기간 이후 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앱에서는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없었다. 이란에서 온 유학생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국내 은행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했다.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에 맞춘 세심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앱 사용 시 외국인이 겪는 불편 해소를 목표로 잡은 KHU넥트 팀원들은 직접 은행에 문의해보기로 했다. 경희대와 제휴를 맺고 교내에서 지점을 운영 중인 하나은행에 해당 문제들에 관한 질문지를 들고 찾아가 팀원들, 하지만 은행의 답변은 지점에서는 해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었다.

본사 홍보팀을 통해 여러 부서에 인터뷰 요청을 해 보았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이메일을 보내 놓고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면 변화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팀원들은 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로 마음을 모았다.

소통으로 소외감 줄인다

은행에서 답변이 오길 기다리며 팀원들은 좀 더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았다.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은 학생들의 정보 커뮤니티로 가장 활성화가 된 '에브리타임' 내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의 소소한 팁부터 강의 시간표 짜기, 수강신청 시 유용한 팁 등 학교 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정보글들을 번역해 한국어로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 이를 ICS 유학생회에 알려 많은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소통한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활동이었다.

“유학생들이 우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 KHU넥트 팀원들은 “앞으로도 조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지는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하나하나의 시도가 모일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원들은 하나은행에 방문하거나 앱 <에브리타임>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유학생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5×10 스티커로 구하는 생명 야생 조류와 도시의 방음벽, 공존의 길을 찾다

투명 방음벽 문제 확인,
지자체에 민원 제기
용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 직접 붙여

참여 학생

김도연 산업디자인과 23학번

백서현 일본어학과 23학번

이상윤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3학번

이운서 도예학과 23학번

한승규 기계공학과 23학번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음벽, 특히 투명 방음벽은 조망권 보호를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투명 방음벽은 ‘투명하기에’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벽이 되기도 한다. 방음벽을 포함한 투명 유리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국내에서만 연간 800여만 마리에 달한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들을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도연(산업디자인과), 백서현(일본어과), 이상윤(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이운서(도예학과), 한승규(기계공학과) 학생 다섯은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생명을 잃어가는 야생 조류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새 한 마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믿음으로.

5cm×10cm 간격 스티커, 조류 충돌 막는다

팀원들은 먼저 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야생 조류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부천, 시흥, 용인, 수원, 인천 등 거주 지역의 방음벽 주변을 주기적으로 둘러보던 중 실제로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의 사체를 확인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현장 조사와 함께 문헌 및 자료 조사도 진행하며 야생 조류가 방음벽에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폈다. 방음벽 주변에 나무를 심어 새들이 쉬어 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도록 하는 생태적인 방법, 방음벽에 빛을 반사시키는 시트를 붙이거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해 새가 피해가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그중에서 팀원들이 주목한 방법은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맹금류를 본뜬 스티커와 5cm×10cm 간격의 점 스티커(이하 5×10 스티커)가 사용되고 있었다. 오래된 방음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금류 스티커의 경우,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움직임이 없기에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새들이 스티커 사이로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트랩이 되기도 한다. 팀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방음벽에서 확인한 스티커는 주로 맹금류 스티커였다.

한편 5×10 스티커는 5cm×10cm 간격으로 점을 붙여 새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팀원들은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5×10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비롯해 교육, 모니터

링 등 조류 충돌 방지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과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을 통해 시민들이 목격한 조류 충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SNS에서 방음벽 문제 알려, 녹색연합 활동가와 인터뷰도 진행

구체적인 활동에 앞서 팀원들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폈다. 총 응답자 65명 중 42명, 약 65%가 조류의 유리벽 충돌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24명이 실제로 유리 방음벽에 충돌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조류충돌 저감 스티커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54%(35명)이며, 이중 5×10 스티커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25%(16명)에 그쳤다. 또한 맹금류 스티커와 5×10 스티커의 효과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약 15%(10명)에 불과했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팀원들은 5×10 스티커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조류 충돌 방지 활동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방음벽의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방음벽을 비롯한 유리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조류 문제의 현 상황과 시민단체의 조류 충돌 방지 활동, 5×10 스티커의 중요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게시했다.

또 녹색연합의 유새미 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유새미 활동가는 팀원들에게 5×10 스티커를 통해 90% 이상 충돌이 감소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하며, 정책적으로 5×10 스티커 활용을 확장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스티커를 붙인 방음벽을 피해 날아가는 새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팀원들의 활동 의지를 높이기도 했다.

새 한 마리를 지키는 작지만 커다란 힘

온라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팀원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나서기로 했다. 2023년 5월 24일, 팀원들은 직접 제작한 피켓 세 개를 들고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앞, 학우들 앞에 섰다. 피켓에는 조류 방음벽 충돌 방지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 ‘네이처링’의 활용 방안과 바로 가입이 가능한 QR코드를 비롯해 맹금류 스티커와 5×10 스티커 중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맹금류 스티커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대답한 학우들에게는 직접 5×10 스티커의 효용성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버스정류장의 투명 유리벽에 스티커 붙이기 활동, 홍보 키링 제작 및 판매 수익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도연 학생은 “작은 행동으로 한 마리 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서 이번 활동의 의미를 찾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다.



팀원들은 방음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피켓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기도 하고 5×10 스티커 붙이기 활동도 직접 해보았다.

누구나 기후 난민 될 수 있다

작은 실천, 기후 위기 극복의 열쇠

기후 난민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통해 지원 정책 건의하기도

참여 학생

- 김희은 호텔경영학과 23학번
- 문진욱 정보디스플레이학과 23학번
- 이채원 응용영어통번역학과 23학번
- 이채은 간호학과 23학번

'난민'이라는 단어는 으레 전쟁이나 정치적, 종교적 갈등 등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한 자연재해가 자리한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3,260만 명의 기후 난민이 고향을 떠나 자국 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2050년 기후 난민의 수가 전 세계 인구의 10%를 넘어 2억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절망적이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누구나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김희은(호텔경영학과), 문진욱(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채원(응용영어통번역학과), 이채은(간호학과) 학생은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산불과 홍수,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와 서적들, 신문 기사와 뉴스 등을 살펴봄에 팀원들은 그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다는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했다.

'기후 난민에 대한 국가 지원 알고 있다', 응답자의 8%뿐

팀원들은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상 기후 현상을 체감한 적이 있으며, 산불이나 홍수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기후 난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103명)의 90%를 넘었다. 반면 기후 난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알고 있거나(7.8%), 직접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16.5%)는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도 금전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어 기후 난민과 관련한 정책의 홍보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에 팀원들은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여기에는 '잔반 남기지 않기', '잘 안 입을 옷 기부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삶 속에서 행하는 작은 실천이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할 시작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 기후로 인한 이재민 대상 법안 발의 건의

2022년 국내 산불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약 230% 상승한 740건, 소실된 산림의 면적은 2021년의 32배에 달하는 24,782ha이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만큼 산불의 위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홍수 피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홍수의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8월 서울을 덮친 기록적 폭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산불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응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팀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 요청 등 실천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의 경우 피해 유형이나 규모에 따른 지원이 아닌 재해 유형에 따른 일괄 지원, 이재민들의 개별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팀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문제 사실을 적시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홍수의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주거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사비 무이자 대출뿐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주택, 소상공인, 온실 등에 대해 70%를 지원하고,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에 대해서는 70%에서 100%까지 상향 적용되어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팀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건의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대',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지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해당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건의하기도 했다.

"일상 속 실천으로 기후 위기 관심 이어나갈 것"

마지막으로 팀원들은 카드뉴스를 통해 제시했던 방안들을 직접 실천하기로 하고 '기후 위기 해결 챌린지'를 기획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매일 한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조금 먼 거리도 걸어다니며 일상 속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다.

김희은 학생은 "직접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동참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웠다"고 밝힌 이채은 학생은 "일상 속 가능한 실천을 지속하며 기후 위기 가속화 방지를 위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세계와 시민>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된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전했다.



팀원들은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의 심각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기후 위기 챌린지를 기획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기도 했다.

노인을 위한, 노인이 중심인 복지 그리기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방향성 탐구

현장 방문 조사를 비롯해
전문가와 심층 면담 진행
노인의 시선에서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변화 필요 지적

참여 학생

류이지 전자공학과 23학번

이단영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3학번

이재원 국제학과 23학번

정동주 국제학과 23학번

정효경 유전생명공학과 23학번

대한민국은 지금 늙는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은 18.4%. 고령사회의 기준 비율인 14%를 넘어 20%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노인 부양비 상승, 노인 빈곤과 고립 등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해결이 난해하다. 노인 부양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노령화는 국가나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개인, 다시 말해 ‘나’와 ‘우리’의 문제이다.

류이지(전자공학과), 이단영(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이재원(국제학과), 정동주(국제학과), 정효경(유전생명공학과) 다섯 학생은 그동안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왔던 노인 문제 앞에서 머리를 맞댔다. 특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주요 관심사였다. ‘현대판 고려장’,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수용소’ 등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수사로 접했던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 대안이라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 어느 것 하나 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자 의지를 다졌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구례행복노인복지센터,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

팀원들이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인 요양보험제도와 복지서비스이다. 『2020요양병원백서』를 읽으며 요양 서비스의 기본 개념, 종류, 실태 등을 확인했다. 관련 논문도 찾아 읽었다. 하지만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팀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농촌과 도시 재가서비스의 차이를 알고자 방문요양센터 현장 조사를 계획했다. 선정한 곳은 구례행복노인복지센터와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수원점. 하지만 첫 방문에서 팀원들은 농촌과 도시 재가서비스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보다는 재가서비스 자체가 돌봄대상자인 노인이나 보호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사실에 집중해 어떠한 특성을 때문인지를 조

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열심히 준비해온 현장 조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재가서비스 시설방문, ‘함께 큰 소리로 웃어보기’

재가서비스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주거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기존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복지시설로 이동해 이루어지는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는 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체조, 인지 훈련을 위한 음악, 미술, 게임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팀원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은 ‘웃음치료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옆 사람과 손바닥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며 웃어보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팀원들은 생수병이나 접시 등 소도구를 이용해 소리 만들기에 참여하고 ‘하하하’ 큰 웃음소리를 내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뭉클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이후 웃음치료사와 인터뷰도 진행했다. 웃음치료가 심장 박동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 기여한다는 것, 엔도르핀,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 호르몬을 나오게 해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체적 능력이 약화되어가는 노인이 자신의 신체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활력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웃음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보호자 아닌 노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이루어져야

센터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팀원들은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보호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단일 서비스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은 요양 시설 건물 모든 층에 밥 짓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 밥 냄새가 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한 층에서만 식사와 배식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효율이 높은 방식이다.

또 한국의 경우 시설 침대가 일반 의료용 침대인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낮은 침대를 사용하는데, 보호자나 간병인은 허리를 굽혀야 해서 불편하지만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침대 벽면에 종이를 붙여 노인들이 자유롭게 낙서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보호자의 시선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노인 중심의 운영 방식은 앞으로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정효경 학생은 “선부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하며, “노인의 시선에서 노인복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나’를 벗어나 상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밝혔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센터의 모습. 흡사 어린이집같이 아기자기하고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지구사랑 실천하는 '친밀하다' 밀키트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향한 여정

친환경+밀키트=친밀하다,
기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 80% 적어
문헌조사, 환경평가,
소비자 인식조사부터
밀키트 제작·판매까지

참여 학생

김민주 Hospitality경영학부 21학번

이슬 지리학과 21학번

이주미 지리학과 21학번

최희제 Hospitality경영학부 21학번

식사를 뜻하는 밀(meal)과 세트를 의미하는 키트(kit)의 합성어인 밀키트는 미리 손질된 재료,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 안내서를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세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해온 밀키트에 대한 수요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급격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대안적 식문화로 자리 잡으며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사용하는 보냉제와 개별포장으로 인한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2년 밀키트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은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민주(Hospitality경영학부), 이슬(지리학과), 이주미(지리학과), 최희제(Hospitality경영학부) 학생은 밀키트 환경평가를 계획했다. 특히 밀키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존에는 포장재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중점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포장재를 최소화한 친환경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했다.

대표 밀키트로 '닭갈비' 선정해 탄소배출량 산출

팀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밀키트 관련 연구 및 식품의 탄소배출 관련 논문을 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식품의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푸드 마일리지'를 밀키트 환경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는 최종 계산식은 식품의 중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는 푸드 마일리지에 '탄소 성적 표시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육상/해상 등 수송방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kg-CO₂/ton·km 단위)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유통과정은 '식재료 재배지-제조원-소비자'로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밀키트는 기존의 복잡한 조리과정을 간편화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닭갈비 밀키트로 정했다. 다만, 직접 생산, 판매할 친환경 밀키트의 탄소배출량 감소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밀키트가 아닌 가상의 밀키트

를 구성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로 했다.

가상의 닭갈비 밀키트의 식재료는 주재료인 닭정육 150g(브라질산)과 국내산 부재료인 대파 35g(전라남도 신안군), 고구마 50g(충청남도 당진군), 깻잎 10g(충청북도 금산), 양파 35g(전라남도 무안군), 양배추 100g(제주도 애월읍)으로 1인분 중량이다. 각 재료의 유통과정 탄소배출량의 계산해 합산한 결과는 약 93,382.7kg·CO₂/ton·km이다.

로컬푸드 이용, 탄소배출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

하나의 완성된 식품의 탄소배출량은 생산, 운송, 가공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탄소배출량의 절대값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안적 방법을 통해 이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들은 국내산 재료, 특히 소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마켓'과 같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판매처를 이용할 경우 식재료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가격 경쟁력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팀원들이 기획한 친환경 밀키트는 '친환경'과 '밀키트'의 첫 글자에, 소비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소 참여 의미를 담고자 선택한 동사 '하다'를 합친 '친밀하다'이다. 주재료인 닭정육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생산된 순살 닭다리살, 부재료는 경기마켓에서 구입한 것으로 대부분 경기도 광주에서 생산되었다. 계산된 탄소배출량은 약 18,694.9kg·CO₂/ton·km로 가상의 닭갈비 밀키트보다 80%가량 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팀원들은 '친밀하다' 닭갈비 밀키트를 제작, 판매하기에 앞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밀키트의 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특히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탄소저감 밀키트 '친밀하다', 2시간 동안 40건 사전예약 판매

'친밀하다' 기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유통과정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로컬마켓에서 재료를 수급한다. 둘째, 포장 방식을 단순화하고 친환경 포장재 및 보냉제를 사용한다. 셋째, 타겟 소비자를 학교 인근 자취생으로 삼고 방문수령 등을 유도해 소비지까지의 이동거리를 단축시킨다. 넷째, 1인분으로 제작해 불필요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5월 16일, 청운관 앞에는 '친밀하다' 밀키트 홍보 부스가 차려졌다. 밀키트 사전예약을 비롯해 프로젝트의 기획 취지와 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문제를 알리는 포스터가 함께 게시됐다. 많은 학우가 관심을 보였고 2시간 동안 총 40건의 사전예약 신청이 접수되었다. 문헌조사, 환경평가, 설문조사, 밀키트 제작부터 홍보와 판매까지 쉼 없이 달려온 12주였다. 팀원들 중 최희제 학생은 경희대학교 학우들에게 밀키트의 환경 영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팀원들은 '친밀하다' 밀키트 홍보를 위해 부스를 열고 사전 예약을 받았다.

멘토링으로 만난 공감과 성장의 '젓가락 행진'

중도 입국 청소년 멘토-멘티 프로젝트

세계시민포럼과 손잡고
프로젝트 진행
'친구'로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

참여 학생

- 김지은 디지털콘텐츠학과 23학번
- 김현진 연극영화과 23학번
- 박서현 산업디자인학과 21학번
- 신건 도예학과 21학번
- 오치윤 건축공학과 22학번
- 장가연 유전생명공학과 22학번
- 정용훈 국제학과 23학번

경쾌한 리듬의 '젓가락 행진곡'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혹은 친구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대고 연주를 해본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옆 사람과 박자를 잘 맞춰야 젓가락 행진곡을 훌륭히 연주할 수 있듯이, 또 젓가락 두 개의 합이 잘 맞아야 음식을 집을 수 있듯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눈을 맞추며 동행하는 '젓가락 행진' 프로젝트. 경희대학교는 2022년부터 사단법인 세계시민포럼과 손잡고 세계시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부모님 따라 왔어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행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부모님을 따라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 기후, 문화가 다른 낯선 땅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한창 예민한 10대, 청소년이 아닌가. 이들을 위해 멘토가 되겠다고, 아니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나선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뜻깊은 여정을 따라가보자.

지구촌학교 학생들과 우정 쌓기

박서현(산업디자인학과), 신건(도예학과), 오치윤(건축공학과), 장가연(유전생명공학과) 네 명의 학생은 '지구촌학교'를 다니는 중국, 베트남 청소년 6명과 멘토-멘티로 맺어졌다. 서울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은 캠퍼스를 함께 둘러보며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갔다. 조금은 어색하고 또 조금은 설레는 첫 만남이었다.

함께 가기로 결정한 첫 장소는 한강. 서로에게 궁금한 것 3가지를 미리 준비해오기로 한 덕분인지 대화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보드게임, 자전거 타기, 산책 등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첫 만남에서 느꼈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의 정치적 상징과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도 하고, 화성행궁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놀이공원과 아이스링크장에 함께 가 신나게 놀기도 하고 삼겹살, 치킨, 베트남 음식을 먹으며 식문화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멘티들은 한국에 대해 열심히 보고 들으면서도 자국의 문화에 대해 멘토들

에게 열심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쌓으며 나이도 국경도 넘어서는 우정을 쌓아갔다. 다섯 번의 만남을 가지며 멘티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전공 정보를 비롯해 대학 입시와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질문에 대답했고, 이를 듣는 멘티들은 대학생이 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받았다.

다솜관광고등학교 학생들과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찾아

김지은(디지털콘텐츠학과), 김현진(연극영화과), 정용훈(국제학과) 세 학생은 다솜관광고등학교에 다니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과 팀을 이뤘다. 고등학생인 멘티들과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새내기 학번인 멘토들. 첫 만남부터 친구 같았다. 오히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멘티들이 서울의 '핫 스팟'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였다.

앞 팀과 마찬가지로 서울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이 함께 정한 첫 장소는 역시 한강. 멘티들도 멘토들도 한강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저런 구경거리와 간식들, 아름답게 펼쳐지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한껏 설레는 시간을 보냈다. 놀이공원과 '롤러클럽'에서 함께 놀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멘티-멘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큼이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프로그램의 목표도 중요할 터. 팀원들은 '수원시 중도 입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라는 논문을 탐독한 끝에 한국의 역사를 테마로 잡고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방문을 계획했다.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희생의 역사를 되짚을 때는 함께 숙연해졌고, 독립문 앞에서는 함께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지금-여기 함께 공감하며 진짜 친구가 되는 경험을 했다.

추억을 간직할 소책자 제작, 응원의 마음을 담다

멘티들과 대여섯 번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쌓은 두 팀은 멘티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소책자를 제작했다. 함께 갔던 장소들의 정보와 함께 찍은 사진, 멘티들에게 전하는 멘토들의 편지도 함께 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추억들이 멘티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하기를, 또 함께한 경험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멘토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리고 이들의 진심이 멘티들에게 전해졌다.

멘티들만이 아니다. 멘토들 역시 멘티들과의 만남을 통해 오래 기억될 추억을 가슴에 새겼고, 한층 성장한 자신들을 발견했다. 일방향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시민 멘토링 프로젝트. 이들은 함께 '젓가락 행진곡'을 멋지게 연주해냈다.



첫 번째 사진은 '젓가락 행진'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팸플릿. 팀원들은 지구촌학교에 다니는 멘티들과 달고나를 만들어 먹으며 한국을 신나게 경험했다. 다솜관광고등학교 멘티들과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봤다.

차세대 소비 주역 MZ세대, 전통시장의 새로운 경쟁력 될까

망원시장과 수유시장 직접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 경청 철저한 위생관리, 카드 결제 활성화, 식음료 섭취 공간 마련 등 구체적 방안 제시

참여 학생

- 노영지 지리학과 21학번
- 송혜린 지리학과 21학번
- 임민희 지리학과 21학번
- 장지인 지리학과 21학번
- 정서윤 지리학과 21학번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연결하며, 지역 경제 안정과 번영의 기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경영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전국의 전통시장은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으며, 시장 내 문 닫는 점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영지, 송혜린, 임민희, 장지인, 정서윤. 지리학과 21학번 다섯 학생은 최근 차세대 소비 주역으로 떠오른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이 해법이라고 보았다. 먼저 활성화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반면 비활성화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망원시장과 수유시장 답사, 마케팅 개방성 관련 가설 ‘기각’

2023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은 1,440개, 서울에만 33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팀원들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의 유형과 형태, 취급 상품, 시장 및 상권 크기, 점포 수, 종사자 수 등이 유사하면서도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두 시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핀 끝에 망원시장과 수유시장을 찾기로 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시장 모두 지역주민이 많이 찾고 지역 상권과 함께 공생하는 ‘지역 상생형 전통시장’으로 다른 조건들이 유사함에도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팀원들은 망원시장을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수유시장을 비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설정하고 답사 계획을 세웠다.

“망원시장의 상인들이 수유시장의 상인들보다 마케팅에 대한 개방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망원시장이 수유시장보다 부흥할 수 있었다.” 팀원들이 답사를 준비하며 구체화한 이 가설은 현장 답사와 인터뷰 결과 ‘기각’되었다. 마케팅에 대한 개방성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했지만 그것이 시장 활성화의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망원시장이 수유시장보다 매출액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유시장을 비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수유시장은 지역주

민의 소통과 연결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유사하다고 했던 다른 조건들도 차이가 있었다. 두 시장이 지역상생형 시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망원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아 하나의 큰 상권을 가진 ‘랜드마크형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시장의 규모 역시 망원시장이 수유시장의 두 배에 달했다. 망원시장의 대조군으로 수유시장을 선정한 것이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미디어 노출, 망원시장 활성화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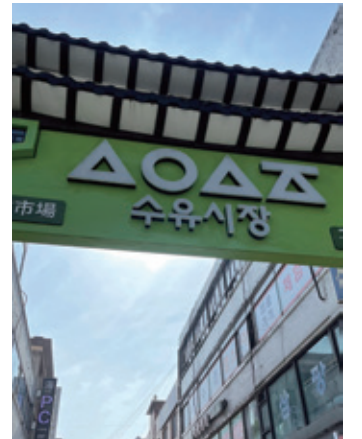
비록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망원시장과 수유시장 모두 치열하게 시장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망원시장이 랜드마크형 전통시장으로 변모한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2012년 내내 있었던 홈플러스와의 대립이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들어선 홈플러스로 인해 망원시장의 매출은 20%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시장 인근에만 5개가 들어섰다. 이를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한 상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위와 농성을 이어갔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끝내 망원점 익스프레스 폐점, 전통시장 먹거리 15종의 마트 판매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홈플러스와 맺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도에는 유명 연예인이 망원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시장을 보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흥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망원동으로 유입되어 구성된 ‘망리단길’의 영향력이다. 미디어 노출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망원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편, 수유시장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실천하고 있었다. “당당한셰프”라는 밀키트를 기획해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는 밀키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도입해 판매 경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3D 시장 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MZ세대 맞춤 전략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유시장의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답사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활동”

현장 답사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팀원들은 연구 결과를 정리해 논문을 작성했다. 가설 설정 과정과 기각 이유를 꼼꼼하게 적으며 다시 한번 현장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 답사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카드 결제 활성화, 식음료 섭취 공간 마련,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등 MZ 세대를 겨냥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했다. 노영지 학생은 “답사는 단순히 선행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원들은 직접 망원시장과 수유시장을 방문해 시장 곳곳을 살피고 상인 인터뷰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어린이병원 기부 확산을 위한 제언

미국 '시크레스트 스튜디오'
사례 벤치마킹
성공 사례 분석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실질적 방안 마련

참여 학생
이규리 사회학과 22학번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일어나는 만큼 성인과 달리 질병 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 특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질병 자체의 통증만큼이나 진료 과정과 입원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직접적인 치료 외에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지만 많은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쉽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기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이규리 학생은 어린이병원 기부 활성화를 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했다. 특히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기부 유치 전략과 모델을 찾고자 했다.

시크레스트 스튜디오, 미국 내 13개 어린이병원에 설립, 기부 독려

2022년 한국의 '세계기부지수'는 35%로 119개국 중 88위이다. 기부에 대한 저조한 사회 인식과 더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기관'이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직접적인 병원 기부는 많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기부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지속적인 기부가 아닌 이상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국내 병원 기부의 유치를 위해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속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규리 학생은 문헌 조사를 통해 미국의 '시크레스트 스튜디오 Seacrest Studios' 사례가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유명방송인 라이언 시크레스트 Ryan Seacrest가 설립한 라이언 시크레스트 재단 Ryan Seacrest Foundation의 핵심 사업인 시크레스트 스튜디오는 미국 내 13개의 어린이병원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환아와 환아 가족의 치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해당 병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가, 배우, 작가, 운동선수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유명인들을 병원 내 스튜디오에 초청해 환아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홍보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기업의 물품 기부를 기반으로 한 파티 개최, 지역사회 구성원을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모금활동가 및 상급병원 의료분야 종사자 심층 면담 실시

이규리 학생이 계획한 다음 단계는 전문가 심층 면담이다. 어린이병원 기부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크레스트 스튜디오가 국내 도입이 적절한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면담 대상자는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모금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모금활동가 A, 교수 B, 간호사 C로 총 3명을 선정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을 녹취한 후 내용 전사, 반복적 숙독, 유관 문장 추출, 문장 비교를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재구성한 문장을 범주로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모금활동가 A는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의료기관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모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병원이 추구하는 비전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 B와 간호사 C는 소아청소년과의 낮은 의료 수가를 문제 삼았다. 병원 수입 대부분인 치료비가 낮게 책정되어 적자의 원인이 되고, 결국 환자를 위한 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크레스트 스튜디오의 국내 적용에 대해 세 명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모금활동가 A는 메시지가 스튜디오의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달된다면 병원 모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가 확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팬덤 기부'를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 B는 소아청소년 의료 방향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바라봤다. 최근 치료 중심의 케어에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치료의 범주에 넣어 돌보는 포괄적 케어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설명하며 스튜디오의 도입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포괄적 케어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간호사 C는 스튜디오 도입을 통해 환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환자도 보호자도 병원이 좀 더 편해질 것이고, 병원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역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아와 보호자의 의견도 포함하는 후속 연구 준비

이규리 학생은 연구 문제 설정,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심층 면담 및 분석 등 10주에 걸친 연구 활동을 정리해 소논문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어린이병원 모금 활성화 방안: 미국 Seacrest Studios를 중심으로」를 작성하고 어린이병원 기부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논문 작성을 하면서 연구의 한계 또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분석과 제언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아와 보호자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등이다. 앞으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이규리 학생은 독립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관심의 접점을 찾고, 이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 '시크레스트 스튜디오 Seacrest Studios'의 활동 현장 모습. 한국의 어린이병원에 도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잠들지 않던 우리들, 잠들지 않는 추억들

2023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나의 장소'를 주제로 쓴 글이다.

곽라영

골프산업학과 23학번

경희대학교 제2기숙사를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로운 기숙사 생활을 만끽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자유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누리학사가 떠오르곤 한다. 그 회상은 때면 묘한 향수와 옅은 미소로 마무리된다. 내부 시설이 딱히 쾌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통제되었던 공간인데도 말이다.

기숙사는 2인 1실 사용이 원칙이었고, 1학년을 함께한 소연이와 가장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우리는 방 안에 들어올 때 기분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향기의 방향제를 비치했다. 레몬, 라벤더, 코튼 향 등을 거쳐 가장 오래 사용한 방향제는 복숭아 향이었다. 마트에서 우연히 그 제품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만의 공간으로 들어서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12시 30분에 취침 점호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시간이었다. 점호 이후에는 취침 이외의 행동이 일절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수다를 떨고, 몰래 숨겨온 야식을 먹으며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다. 매일 밤을 지새워도 이야깃거리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선배가 생겼거나, 친한 친구와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거나, 성적으로 뒤통스라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 온갖 주제를 넘나들며 쉬지 않고 떠들었다. 그러다 “근데..... 배 안 고파?”라는 질문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6시에 먹은 석식은 이미 뱃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이다.

작전명 ‘까불’

미추홀외고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식은 단연 컵라면이었다. 소연이와 나는 ‘까르보불닭볶음면’에 푹 빠져있었다. ‘불닭볶음면’만큼 괴로울 정도는 아니

지만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줄 만큼 적당한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소스가 한데 어우러진 ‘까불’만의 매력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러나 기숙사 내 취식은 가장 많은 벌점 사유였기에, 첩보 영화 속 비밀 요원처럼 민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컵라면을 먹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심스레 문을 열어 불 꺼진 복도에 사감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한다. 안 계실 경우, 조용히 나가 물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온다. 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부터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를 틀어 복도 밖으로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완성된 라면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해치운다. 중간중간 사감 선생님의 기척을 확인한다. 쓰레기는 꼭 기숙사 밖에 버린다. ‘들키지 않고 컵라면 먹기 매뉴얼’은 대대로 내려왔다. 벌점 받을까 두려워 배고픔을 견뎌내던 신입생에게 그야말로 선조의 지혜이자 진기한 문화유산이다.

경희대학교 제2기숙사에서 나는 종종 ‘까불’을 먹는다. 뜨거운 물을 받으러 새벽까지도 환한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향할 때면,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어두운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던 때가 어제처럼 느껴진다. 여전히 ‘까불’은 맛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다. 그때 소연이와는 “미친 거 아니냐” “너무 맛있어서 탕뎀스라도 주고 싶다”는 탄성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 ‘까불’ 맛의 비법은 갑갑함을 함께 견뎌내며 짝튼 소연이와의 우정이 아니었을까. 오늘 밤에도 누리학사 안에는 비밀 임무 수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어린 요원들이 있겠지. 부디 그들이 감시망에 걸려들지 않고 원활히 임무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 지금의 내가 그렇듯, 당장은 갑갑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질 기숙사 호실이 잠들지 않는 추억들로 가득한 ‘나의 장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바위너구리 ‘토토’

2023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나의 장소'를 주제로 쓴 글이다.

이현민

생물학과 21학번

나는 2022년 7월에 군대를 전역했다. 복학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어린 시절 꿈이었던 ‘동물원 사육사’를 체험하고자 에버랜드 동물원 사육팀에 지원했다. 사육학도가 아닌데도 합격했는데, 면접 때 곤충을 손으로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 “뱀도 가능합니다!”라고 답한 덕분인 것 같다. 나는 로스트밸리에 배정되어 미어캣, 왈라비와 같은 동물을 맡았다. ‘귀요미 친구들을 맡다니 난 정말 행운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받은 충격은 담당하는 동물의 수였다. 미어캣, 왈라비,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벌거숭이두더지쥐 등 총 12종 190여 마리에 달하는 동물을 관리해야 했다. 종마다 먹이도 다르고, 먹이를 줘야 하는 시간도 달랐다. 동물들이 잠을 자는 동물사를 청소해야 했는데, 요 녀석들이 똥을 어찌나 잘 싸는지 매일 물 청소였다. 코끼리와 코뿔소의 똥을 치우러 지원도 나가야 했다. 전역 이후에도 삼을 들고 있는 나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첫 출근 후 사직서를 낼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사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 2주만 더 견뎌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토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토토는 내게로 와 행복이 되었다

이후 일을 하며 ‘바위너구리’에 관심이 생겼다. 토끼 정도 크기에, 기니피그 같은 생김새지만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은 코끼리인 이상한 친구들이다. 털도 복슬복슬하고, 짱충짱충 뛰는 게 참 귀여웠다. 사육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동물과의 교감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이 친구들은 내가 동물사에 들어오면 전시장으로 도망가기 바빴다. 사료를 손에 쥐고 다가도 피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 녀석은 달랐다. 총 26마리 중 25마리가 나를 피해도 한 친구는 내가 주는 사료를 받아먹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주니 또 받아먹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다음날에도 그 친구에게 먹이를 주려 했는데 아뿔싸! 26마리가 똑같이 생겨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망했다고 생각한 그때 또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왔고, 먹이를 받아먹었다. 어제와 같은 아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의 등에 있는 ‘π’ 모양 상처 자국을 외웠다. 다음날 한 친구가 또 다가왔는데 ‘π’ 모양 상처가 있었다. 매일 나를 반겨주던 친구는 같은 아이였다.

그 친구에게 ‘토토’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토토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바위너구리에 관한 영상이란 영상은 다 찾아보고, 해외 사이트도 찾아 어떤 친구인지 공부했다. 강아지 훈련 방식과 같이 ‘보상 훈련’을 시켜보았는데 ‘손’을 곧잘 배웠다. 토토는 천재였다! 한 달 만에 손, 코, 하이 파이브, 올라와, 내려가 등 5가지 이상의 개인기를 배웠다. 심지어 내 어깨 위에 올라와서 간식도 먹었다. 토토, 이 녀석 덕분에 노동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토토와 즐겁게 지내는 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퇴사하기 전날 토토에게 많은 말을 했다. “토토야, 내가 없어도 잘 지내야 해. 놀러 올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줘!”라고. 토토가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는 친구이기에 이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눈물을 머금고 퇴사한 뒤에도 나는 종종 토토를 보러 간다. 오랜만에 보아도 토토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토토를 보면 행복해진다. 에버랜드 동물원 바위너구리 전시장은 수만 명의 손님 중 나만 아는 ‘토토’가 사는 특별한 공간이자, ‘나의 장소’가 되었다.

비틀린 주름을 이어 길을 만들기까지

2023년 제9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대상 수상작
* 나희덕 시인의 『가능주의자』(문학동네, 2021),
『예술의 주름들』(마음산책, 2021)을 읽고 쓴 서평이다.

권인정
한의학과 20학번

시간여행을 다루는 문학, 예술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가설은 ‘시간의 주름’이다. 시공간의 3차원에서 공간을 접고 접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름을 꿰뚫는 길이 생겨 순간적인 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이론인데, 어쩐지 ‘예술의 주름’과 결을 같이한다고 느껴진다. 주름과 주름, 상처와 상처가 파도처럼 만났다 이어지며,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하다 ‘예술은 세계와 영혼의 주름을 거느린다.’(<예술의 주름들> p.8 질 들뢰즈) 이 주름을 해독할 때 ‘겹눈’이 생기는데, 예술을 사유하는 자에게 이 겹눈이 겹치다 보면, 예술을 꿰뚫는 길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 전시회를 다니며 심미안을 기르고 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아름다움만 포착하고 있을 뿐 그 본질을 꿰뚫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흘러 사라지는, 눈에 띄는 반짝거림만 따라 흐르다가, ‘흐르다가 흘러내리다’의 동의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본질은 상위에 있는데 난 의식도, 의지도 없이 낮은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발돋움해야만 주름을 타고 본질로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시 <흐르다>)

‘흘러내림’에 익숙해지는 것은 ‘벽’의 일부이고, 현실에 대한 직시이다. 시인은 영화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으로 <벽의 반대말>이라는 시와 <벽의 반대말은 해변이요>라는 산문을 전개한다. 해변은 무한히 열린 곳, 어디에나 있는 곳, 세계를 향한 확 트인 전망이며, 벽은 그 반대인 시야의 차단, 전망을 잃어버린 현실이다. 이익 추구가 당당해진 현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벽’이 되며, 이를 직시하고, 벽 너머의 다채로운 전망을 상상할 때 벽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장애물이 아니라 즐거운 몽상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는 예술적·문학적 사유로 세계의 주

름과 상처를 접어가는 발돋움이다.

직시를 통해 벽을 넘었을 때, 작은 나를 넘어갈 수 있다. 시 <유령들처럼>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고, 빗자루, 대걸레, 양동이만 보아 점점 투명해진다고 한다. 이것이 타자를 그저 나에 대한 쓸모, 이익으로만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표현이다. 벽을 뚫고 나왔을 때 비로소 타자를 한 영혼으로 ‘응시’하게 되고, 진정으로 감응할 때 그는 나의 범주에 들어간다. 내가 포용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영혼이 된다.

예술과 문학의 주름을 접어가며 예술에 담긴 상처와 그 본질을 진정으로 사유할 때 우리는 침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손을 뻗을 수 있다. 시와 예술은 결국 현재의 작은 나의 사유보다 더 먼 곳으로 향하고 있고, 감응하라 손짓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 행성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그가 만든 행성 사이를 부유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유와 감각은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예술의 주름들> p.31) 결국 우리가 부유하는 우주는 모든 개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물‘망’이 된다.

한 인간은 유기체로 살아가며 다른 모든 유기체와 유기적인 흐름 속에 놓인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시와 예술적 사유의 힘이다. 나를 하류의 퇴적층에 고이게 했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벽을 꿰뚫고 비로소 타자의 영혼과 조우할 수 있게 만들며, 모두가 결국 우주적인 망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나희덕의 시는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 주며, 기후 위기에서 모두의 위기의식을 끌어내주고, 통합된 아젠다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한다. 문학과 예술의 힘이 바로 이것이며 우리가 비틀린 주름을 이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밀어 올린다.

뼈

2023년 제9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금상 수상작

나은이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갯지스강 바닥에는 뼈가 흐르고 있다. 남자의 가슴뼈와 여자의 엉덩이뼈가 가라앉아 있다. 뼈가 되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마음이 있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방글라데시까지 흐르는 마음이 있다. 이는 인도인이 받아들인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할아버지 입관식에 있다. 솜으로 코를 틀어막고 새하얗게 늘어져 있는 할아버지를 모두가 울면서 주물렀다. 할아버지를 여러 번 묵었고 나무관에 넣어 땅 깊숙이 묻었다. 하나의 무덤이 세워지고 나서야 죽음이 종료되었다. 그 후로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다.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에 고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친구의 가족이 돌아가신 날, 장례 문화원에 방문했다. 초여름에 입으려고 샀던 셔츠를 급하게 챙겨입고 지하철로 두 시간을 달렸다. 정거장마다 수많은 사람이 내리고 탔으며 승객들은 웃고 떠들었다. 친구는 인사하는 법부터 향에 불을 피우고 위로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주었다. 친구의 등이 참 작았다.

다시 두 시간을 달려 돌아가는 동안 어두운 차창에 죽음이 몇 번이고 떠올랐다. 국내 노동자들이 죽었고 대규모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났다. 큰 전쟁이 터지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죽음을 외면하는 동안 지구에 너무나 많은 뼈가 쌓이고 있었다. 죽음이 운반되고 있다. 죽음이 가볍게 떠오르고 있다. 지구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복귀하고 있다.

대학교에 다니며 몇 번의 죽음을 더 마주하였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참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지고 싶어했고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나는 더 이상 삶의 끝이 없는 아이처럼 굴 수가 없었다. 깨달았던 날에는 집으로 돌아와 네 시간 동안 혼자 집 청소를 했다. 버릴 것을 정리하니 커다란 자루가 세 개 나왔다. 지구인이 지구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를 깨끗이 해야 한다. 투명하고 맑은 물처럼 너무 깨끗해서 죽음이 쉽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여름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위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전쟁 피해자를 돕기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남아 있었다. 죽음이 없는 인공지능과 죽음이 있는 내가 대화하며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았다.

갯지스강 안에는 어린 소년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입산부도 있다. 강 안팎으로 흩어진 뼈들은 그들에게 익숙하다. 교정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하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오기만 해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린다. 경희의료원 바로 옆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늘 두렵고 신기하다.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오니 이따금 몸속에서 뼈와 뼈 부딪는 소리가 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게 될 엉덩이뼈를 더듬어 만져본다.

“자유롭게 읽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책과 함께 성숙하는 ‘아레테’

학생 제안으로 탄생, 경희 대표 자치기구로 성장
공모전·문화 활동 등, 책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아레테(Arete)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결성해 운영하는 경희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이다. 2012년 중핵교과를 수강하며 인간의 존재와 가치 문제에 눈을 뜬 한 학생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후마니타스들은 아레테를 통해 강의실 안에 머물지 않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고와 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아레테는 고대 그리스어로 탁월성(Excellence)을 의미한다. 구두장이의 아레테는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것, 대장장이의 아레테는 단단한 철을 능숙히 다루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 최고의 아레테를 ‘좋은 것’, 즉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라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 ‘탁월성’을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을 이어 나가고 있다.

“캠퍼스 간 제한 없다”

중핵교과 내용을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은 중핵교과 스터디 모임뿐만 아니라 독서토론 모임, 시사토론 모임 등 활동 내용이 다양해졌다. 아레테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산하 기관으로서 1년에 네 차례(1·2학기, 여름·겨울방학) 신입회원을 모집해 취지를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5~10명씩 구성된 팀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 스터디를 한다. 방학 때는 학술 기행을 떠난다. 팀 단위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비정기적 프로그램으로 북 골든벨, 백일장, 에세이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교수로 구성된 학습 지원 전문가 그룹이 상담하고 지원한다. 발제문, 리포트 등

은 아카이브로 구축해 지식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레테는 독서와 토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코로나 확산 이후 학술 기행 등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디스코드(Discord)를 활용한다든가, 줌(Zoom)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해 읽었다. 서울-국제캠퍼스 간 제한이 없어 더 다양한 학우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된 만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모임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깊이 읽고, 경청하고, 우정 쌓는다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다.’ ‘경청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말하는 아레테의 정체성이자 장점이다. 아레테에는 조원들 간 우정 어린 멘토-멘티 관계는 있지만 제도로서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무차별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아레테는 독서의 자발성과 독해의 창조성, 토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

아레테의 독서 활동은 중핵교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출발했지만, 독서 및 토론의 활성화를 이끄는 힘은 각자의 자발적 호기심과 탐구욕이다. 따라서 아레테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실제 수업 관련 독서와 구별된다. 어떤 외적 동기가 독서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레테에서 후마니타스들은 정형화된 권장도서 목록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 체험을 쌓는다. 순수하고 치열한 사유 행위를 통해 후마니타스들은 교양의 바다로 향한다.

대학과 학생 잇는 소통 창구 후마 교육 방향 함께 모색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까지 미비점 개선
후마 교육과정 개편 참여, 교양교육 미래 구상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그 중심에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대학생위원회는 학점 평가, 교재 내용, 기자재 등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에 직접 건의하거나 교수들과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해나간다. 교양수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의 이상에 따라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경희대학교는 2010년, 대학생위원회를 발족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재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며 학생자치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주도형 배분·자유이수 창작 공모전 개최

대학생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배움학점제’ 활성화다. 배움학점제는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교양강좌를 신청받아 강사를 섭외하고 대학에 요청, 요건이 충족되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2023년 2학기 출범한 국제캠퍼스 대학생위원회 ‘하이쿠Hi-KHU’는 ‘2023 Show Me Your 배분이수 공모전’을 개최했다. 교과과정 구성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배분이수교과는 졸업에 필수이기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강의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공모전 참가자는 강의 개설의 필요성, 수업 개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심사 기준은 교양교육의 가치 실현 및 학문적 성취 실현, 교과목 운영 실현 가능성, 교과목의 체계성과 창의 융합성이었다. 교수진 심사와 학생 투표를 거쳐 ‘홀로서기를 위한 생활법률’, ‘사랑의 이해’, ‘인공지능과 심리학: 기술과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 ‘비엔날레: 현대 미술 읽기’, ‘알고 보면 가까운 우주’, ‘설득의 기술’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청회 개최, 절대평가 도입 등 논의

2023년 서울캠퍼스 제15대 대학생위원회 ‘빈칸’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에 목소리를 더했다. 구성원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후마 교수진과 학생 대표단이 대화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기획, 운영했다. 공청회에서는 절대평가 도입,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배분이수교과 영역 분배 및 이수 요건 등을 검토했다.

또한 ‘느린우체통’, ‘도서관이 활짝 피었습니다’, ‘갯생살기 챌린지’ 등 행사를 운영하며 자아 성찰과 습, 습관 형성의 가치를 전달했다.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퀴즈대회 ‘뽕뽕 후마 오락실’을 개최하기도 했다. 방학 때는 ‘빅뱅에서 문명까지’ MT 버전인 1박 2일 천문캠프 프로그램 ‘별빛제’를 열어 많은 학생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에는 서울캠퍼스 제16대 대학생위원회 ‘채움’과 국제캠퍼스 대학생위원회 ‘하이쿠Hi-KHU’가 후마스러운 교육문화를 이끌어나간다. 대학생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대의원 신청을 통해 대학생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SNS(인스타그램 서울캠퍼스 @khu_hucalwe, 국제캠퍼스 @hi_khu)에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 강의실 밖 축제로!

예술교과 학생과 지도 교수 공동 기획·연출
공감능력·관계성 재발견, 자아 찾고 감수성도 함양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는 매년 특별한 ‘송년 파티’가 열린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준비한 ‘Art-人-후마니타스 예술축전’이 그것이다. 예술축전은 음악, 미술, 무용 등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을 밖으로 확장해 학습과 축제를 연결한다. 예술 관련 강좌 수강생이 같고 닳은 기량을 뽐내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의 예술적 협업을 도려내고, 감수성을 다독이는 유의미한 장이 펼쳐진다.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으로 공감 능력 재발견

예술축전은 전시와 공연,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로 영화제를 개최해 호응을 얻기도 한다. 음악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직접 실내악을 연주하거나,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발췌해 엮은 영상을 선보이기도 한다. 음악과 영상, 내레이션이 어우러지는 종합 퍼포먼스다. 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 클래식, 댄스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무용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국립현대무용단 등과 교류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기도 한다. 직접 춤추며 순간의 중요성과 무한경쟁 속 잊고 있던 꿈을 표현한다. 미술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거나 벽화를 그려나가는 과정을 소개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케스트라의 오늘’, ‘우리 가락으로 만나는 세상’, ‘영화제작기초’, ‘무용예술과 상상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참여해왔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예술축전을 개최하지 못했다. 2024년은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만큼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작품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는 “예술교과는 감성의 성장, 감성의 발견을 중시한다. 후마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축전의 핵심은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이라며 “함께 소리 내어 음을 맞추고, 몸을 움직여 합을 이룰 때 예술 활동을 통한 감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후마 예술교과와 예술축전의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문·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 구현

예술축전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문과 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교수와 학생 간 교감·소통의 장으로서 교육 효과 및 교수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사제 간의 정도 느낄 수 있다. 셋째,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어 공연을 기획·연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해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새롭게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전시와 공연은 기획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공감과 협동을 이뤄내야만 가능하다. 학생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과 관계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예술 및 체육교과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마’의 추진 동력, 교양교육연구소 지구적 문제에 직면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활동
후마 시민교육 및 실천교육센터, 2018 목련상 수상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이라는 포부를 앞세워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을 쇄신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그 추진 동력 중 하나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이하 후마 연구소)다. 후마 연구소는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과 공유한다.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전범을 수립하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을 연2회 발간한다. 후마 교양교육의 철학, 교육 내용, 교육 방법론 등 새로운 이론과 실제 적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후마니타스 포럼』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비롯한 최근 국내외 교양교육의 연구 성과를 심화, 발전시킬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교양교육 연구 성과 심화, 발전

2013년 여름부터 후마 연구소는 매년 두 차례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국내외 지성들이 모여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현장에서 나온 지혜를 나눈다.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은 『후마니타스 포럼』에 실린다. 2023년에는 ‘SDGs가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방안과 과제’, ‘글쓰기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밖에도 후마 자체적으로 교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 교재 내용과 편제를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등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공고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실천교육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등과 함께 후마 교양교육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인재들이 폭넓은 식견과 열린 정신으로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탁월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적 독립과 지적, 정서적 성숙을 돕는다.

실천교육센터, 대학의 사회적 책무 다한다

실천교육센터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움과 실천을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2008년부터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실천인문학센터가 전신으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난 2014년 재출범했다. 후마니타스 주니어칼리지(초·중·고 학생 대상), 후마니타스 시니어칼리지(기업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그린캠퍼스 사업, 기후변화와 위기의 전환사회 모색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및 실천교육센터가 목련상(실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련상은 경희 최고 영예의 상으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수여된다.

후마 연구소와 실천교육센터는 앞으로도 교양교육의 재도약을 추진해나가며 국내를 넘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계시민 의식 일깨우는 축제 평화 위한 교육 실천·활동 다짐

생태 영화 상영회 및 토크 콘서트 개최
인류사회 위기 넘어서 평화의 마음 요청



가을바람을 타고 평화를 향한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제42회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경희학원은 2023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약 일주일간 경희캠퍼스는 평화로 물들었다.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 및 학술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고, 후마니타스칼리지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필요성과 인류 문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9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로, 경희대학교가 제안해 1981년 제정됐다.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에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경희의 평화사상을 함축하는 이 말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개선)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 가치임을 뜻한다. 이 같은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한 1981년, 경희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의 제정을 적극 주도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학문과 평화의 지구촌 축제 ‘Peace BAR Festival(PBF)’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를 주제로 인류사회의 실존 위기를 넘어서 평화의 마음, 정치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인류 의식을 다시 요청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AI·핵·UAP라는 지구적 난제를 풀어갈 새 문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존 의식과 정치의 관행을 넘어 평화를 향한 다른 선

택을 모색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부터 PBF의 일환으로 세계평화주간을 선포하고 있다.

인간과 문명,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 모색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9월 21일 멀티미디어관 112호에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생태 시네마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자연, 인간과 문명의 공존을 묻다”를 주제로 영화 <수라>(황윤 감독, 2022)를 세 차례 상영했다. 영화를 관람한 뒤 구성원이 함께 모여 개발과 성장 중심의 현대문명이 자연에 가한 파괴적 결과를 성찰하며, 인간과 문명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 실천과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9월 4일부터 19일까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를 주제로 ‘세계평화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했다. 22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상 1팀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장 및 부상이 주어졌다. 최우수상 1팀(30만 원), 우수상 3팀(20만 원), 장려상 4팀(10만 원)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다.

9월 21일과 22일에는 청운관 앞마당에 ‘지구시민 부스’를 설치해 세계시민 활동 체험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서울캠퍼스 중앙로에서는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을 열어 경희의 평화운동 여정을 기록한 사진들을 통해 PBF의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에서 ‘UNAI ASPIRE 경희 평화 포럼’이 열려 ‘협력으로 해결해나가는 위기: 기후 위기와 탈세계화’를 주제로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을 공유했다.

지속가능한 문명 창출하는 젊음의 상상력 발전소

취·창업, 문화예술, 새로운 삶의 방식 등 입체적 지원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 결합

2017년 출범한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경희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래혁신원은 경희의 교육철학을 미래지향적, 전 지구적 맥락에서 재정의하고, 학생 개인의 성취는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인’을 길러내기 위해 설립됐다.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경희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능력을 발전시켜 지구사회를 끌어올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취업을 포함한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창업스쿨과 같은 비교과 강의부터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 1대1 진로·취업 상담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때 실질적 도움을 준다.

자기성찰과 미래예측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기획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인권,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안적 접근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다.

1:1 멘토링, 학생들에게 큰 인기

취업, 창업, 학계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출, NGO/NPO, 새로운 삶의 방식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최대한 확대하고, 해당 영역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종합적인 실험·실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래인재센터 SNS(인스타그램 @khu_job)에서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미래혁신원은 직무 탐색 프로그램, 동문 취업 상담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상담 등을 포함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설계, 취업교육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오픈랩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및 코딩 교육, 진로탐색캠프, 오픈랩 공모전도 인기가 높다.

2023년에 진행된 프로그램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 ‘Job Fair’는 삼성, 포스코, 현대, 기아 등 원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또는 직무 선택 사원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채용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동문 현직자의 재직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및 직무별 핵심적인 취업 준비법을 1:1 멘토링으로 알아볼 수 있는 ‘Job Festival’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분간 산업군, 기업체, 직무 관련한 이해를 높이고 트렌드를 공유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 롯데, GS, 카카오, 기아, 현대 등 다양한 기업, 다양한 직무의 동문 현직자를 만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의 A to Z △취린이를 위한 공기업 취업 뽀개기 △화장품 업계 영업/마케팅 직무 분석 △홍보(PR) 직무 스토리 등 다양한 주제로 동문 특강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오픈랩을 운영한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오픈랩은 스튜디오, 정보 지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회 진출 캠프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미래혁신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생태학, 도시학, 전환설계 등 보다 큰 시야로 세계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공교육을 사회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경희’에서 지구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이어간다

멘토링 등 지역사회와 연대, 교육공동체 구축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활동

경희의 글로벌봉사팀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전개하는 범대학 차원의 공적 실천기구다. 자발성 및 지속성, 상호성, 지구시민성, 연구·교육·실천의 창조적 결합, 전공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원칙 아래 대학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봉사팀은 나눔과 기여, 헌신을 통해 글로벌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새로운 경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구성원과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시민사회와 함께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성원의 꿈과 열정이 성숙하는 창조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또한 지자체, 기업 봉사단, 언론, 정부기관과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국제 NGO, 해외 대학과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구적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들은 글로벌봉사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과 생명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봉사팀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고, 교육봉사 및 지역사회봉사, 해외봉사를 진행한다. 다양한 교내행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체코 비소치나 주에서 환경정화 활동

글로벌봉사팀은 2011년부터 매년 두 차례(하계, 동계) 도움이 필요한 해외지역으로 봉사팀을 파견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선정돼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나쓰응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피스 빌리지’ 사업을 펼쳤다. 2015년 성공적



인 사업 종료 후에도 매년 단기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 여름에는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8박 10일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함께 체코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체코 비소치나 주 트레비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글로벌봉사팀 봉사단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봉사단이 함께 플로깅, 벌집 제작 및 설치, EM흙공 만들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수행했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졌다. 체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본인의 미래비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해외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봉사하다가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봉사를 통해 사랑과 사람, 모두를 얻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멘토링 활동 참여, 나눔의 가치 실천

국내에서도 교육 봉사와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했다. 글로벌봉사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역량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멘토링은 멘티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된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며, 교학상장의 기쁨을 경험한다.

2023년 여름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개최했다. 3개 팀 총 75명의 학생이 참여해 봉사에 대한 열정을 꽃피웠다. ‘쿠팡(KHUPANG)’ 팀은 ‘사랑속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사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멘티들의 꿈의 영역을 넓혀주었다. ‘관광 부름마블, 나만의 여권 만들기, 지도 토포아보기, 나는 어떤 여행자?’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멘티들의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켰다.

‘설국버스’ 팀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중학생 멘티들에게 ‘그린 리더십’의 가치를 심어주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나가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흙공 만들기, 업사이클링 교육, 마시멜로 탑 쌓기, 그린 리더십 교육과 진로탐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리더십의 가치를 나누며 함께하는 멘티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투게더’ 팀은 대구 가나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픈 북극곰을 구해보아요, 지구엔 다양한 의상이 있어요, 신호등 카나페 만들기, 지구의 다양한 나라와 공공기관 탐색 등 다채롭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멘티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우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글로벌봉사팀은 SNS(인스타그램 @khu_g.volunteer)에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추진했다. 경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캠퍼스 내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캠퍼스 별로 선착순 100명에게 친환경 리유저블 백 또는 친환경 복층더링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글로벌봉사팀은 경희 구성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다.

글로벌봉사팀 GVT 학생기회단 ‘쿠럽’은 2023년 세계 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GVT는 Global Volunteer Team의 약자다.



글로벌봉사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역량과 사회공헌을 연결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기회단은 글로벌봉사팀에 소속돼 정기적인 회의 및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활동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봉사시간도 인정된다.

‘쿠럽’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모였다. 도시화로 무너져가는 도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새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인공둥지 설치 프로젝트’, 교내 나무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캠퍼스 숲 생태계를 보존하는 ‘교내 나무 넘버링’, 도심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초등학교생에게 전달하는 ‘초등학교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PBF에서는 지구 생태계를 VR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마음을 담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엽서에 있는 동식물이 상징하는 달에 맞춰 우편을 보내는 ‘느린 우체통’,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배우는 ‘SDGs 다투’ 등 체험 중심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의 책무 중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민과 공감, 평화와 공영의 마음을 기르고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글로벌봉사팀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4

학생들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사회에 나가 뒤돌아본 교양교육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가?
출범 13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으로',
세계시민교육, 글쓰기, 독립연구, 그리고
다양한 배분 및 자유이수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삶을 향하여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에서 모든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는 나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이 충분히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교양교육의 새로운 요람 후마니타스칼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자신의 삶을 곱씹어볼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느 순간 가장 행복했는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진솔하게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수강해야 할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 과목의 수업 목표입니다. 쉽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글쟁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글쟁이들은 글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쓰는 과정 혹은 쓰고 난 이후의 성취감이 글쓰기의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글을 쓰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비교해보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성장·성숙하고 있다는 실감이 아닐까요? 이를 통해 나의 삶과 생생하게 대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 스타들이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게임을 즐기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렇듯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에서 모든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는 나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이 충분히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을 둘러볼까요? 먼저 부



고인환
글쓰기교과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는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충분히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대등한 관계를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부모님이 내 나이 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부모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확장해볼까요? 제가 학창 시절 좋아했던 한 문학 평론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문하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은 ‘현실 속에서 현실 너머’를 상상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 여기’의 삶의 규범들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치 기업 CEO나 대통령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터입니다. 그러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연애, 취업,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택 마련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기만 합니다. 웬지 나의 열정이 부족한 것 같고, 노력이 모자란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고, 관심 분야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는 여정에 후마니타스가 함께하겠습니다.

후마는 헛짓거리?

“도대체 경희대 후마니타스가 뭐예요?”

“교양 대학과 다른 게 뭐죠?”

타 대학의 교수나 지인들이 저에게 묻곤 합니다. 심지어 교내 구성원들도 묻습니다.

“인문학이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공대 학생들에게 철학이 왜 필요하죠?”

“뭘 교양과목에 팀플이 그렇게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 전공 공부하기도 힘든데 교양이라도 쉬워야 하지 않나요?”

‘딱히 반문할 수 없는,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 후마니타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까? 그래, 그럼 후마의 ‘헛짓거리’를 영상에 담아보자.’ 후마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나의 후마’ 동영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후마니타스의 교육 목표는 우리 학생들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다소 막연해보이기도 하고 관념적이랄 수도 있는 이 목표를 향해 후마 교육이 10년을 달려왔는데, 구체적인 교육에서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후마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후마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후마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일단 세상에 한 번 부딪혀보자’라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후마는 남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 주체가 되어 내 삶에 질문을 던지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후마가 더 특별한 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교육이죠.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일찍 깨닫게 했습니다.”



백수희
예술교과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선택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마음껏 해보세요.
겁내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아가 충실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은 후마 교양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의 밑거름이 되는 교양을 배웠노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말하는 후마 교육은 졸업을 위한 요건이나 단순한 학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타인과의 공존을, 당장의 결과보다는 함께하는 과정을, 정답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후마 교양교육의 요체였음을 우리 졸업생들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 후마 교육이 ‘헛짓거리’가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서 ‘인간’을 고민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탐색하게 하는 ‘교양다운’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헛짓거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바르고 옳은, 그리고 정확한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뼈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되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느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선택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마음껏 해보세요. 겁내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헛짓거리’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특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후마와 함께 수많은 ‘헛짓거리’를 해봅시다. 반복되는 ‘헛짓거리’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방향을 모르는 ‘헛짓거리’는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후마와 함께, 눈가리개를 한 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닌,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내는 야생마가 되어 미래를 질문하고 스스로 그 미래를 선택하는 품위있는 ‘후마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마인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낮선 도시’라는 은유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었다. 그리하여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아보았으면 싶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장은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스승으로 작가인 동시에 철학자였던 장 그르니에의 산문집 『섬』에 수록된 「케르겔렌 군도」의 도입부이다. 그 뜻도 모르고 스무 살 무렵의 대학생이었던 나는 마음이 침전될 때마다 혀를 굴려 읊조리곤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로(zero)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이나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출발의 형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당신은 대학이라는 “낯선 도시”에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산시로』에서의 비유를 빌리자면, 친밀성(가족과 고향)으로 충만했던 ‘제1의 세계’를 뒤로한 채, 인류의 지(知)가 누적되고 생성해가고 있는 ‘제2의 세계’(학문과 진리)의 안쪽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혼돈스러운 마음과 정념을 가로지르는 ‘제3의 세계’(우정과 사랑) 역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성숙에는 통행료가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학문과 진리 추구를 나는 자주 ‘여행’의 비유를 들어서 음미하곤 한다. 그것은 물론 ‘낯선 도시’로의 여행이다. 낯선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만나는 것은 미지의 존재 즉 타자(他者)이다. 여기서 타자라는 말은 당신과 ‘게임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인 혹은 관념을 의미한다.

대학은 장 그르니에가 말하는 “낯선 도시”의 은유와 유사하다. 이곳은 국적이나 지역이 다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래하는



이명원
시민교과

먼저 길의 ‘지도’가 필요하다. 비틀거리는 망설임과 방향 속에서 가야할 길의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

동시에 편리함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고요한 사막’과도 같은 낯선 탐구를 통해 자기만의 정신, 영혼, 열망을 구축해나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때로 생활세계의 실감을 넘어서 있는 초월론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생소한 ‘사고실험’과 ‘지적 도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장소에서 당신은 익숙한 언어나 문법, 관념과 습속, 사고방식과 세계관 등의 게임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를 함께 발명해야 한다.

지적 탐구는 여행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낯선 것과 대면할 용기와 함께 몇 가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먼저 길의 ‘지도’가 필요하다. 당신이 여행하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섬세하게 이어진 골목길까지 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지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침반’도 있어야겠다. 지적 탐구와 훈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혹은 미로에 갇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물론 리 호이나키의 말처럼 정의나 진리에 이르는 길은 직선이 아니다. 비틀거리는 망설임과 방향 속에서 가야할 길의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 현지의 유능한 ‘안내자’와도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당신이 방문하는 낯선 장소에는 그곳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혹은 여러 번 여행한 바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훌륭한 탐구의 ‘가이드’가 되어 낯선 장소의 풍속과 문화와 문법을 소개해줄 것이다.

낯선 도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타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고요한 사막’의 ‘비밀’ 역시 거둬 음미해야 한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의 비유를 빌리자면, 당신은 ‘밀실’과 ‘광장’을 끈질기게 교차시켜야 한다.



인문학이 낯설고 어려운가? 그런 그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좀 거창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교양교육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많은 대학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은 이전의 교양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처럼 교양교육이 고전을 중심으로 읽고, 성찰하고, 쓰고, 토론하고, 세계의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대다수 대학은 개별 단과대학 교수들의 전공을 입문 수준으로 낮추어 교양과목으로 가르쳤다.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고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전공을 넘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지가 않다. 암기와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입시에 내몰리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도 자기와 세계를 차분히 살펴보고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갈 교육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후마 출범 직후부터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필자도 사실 대학 시절에 제대로 된 교양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당시 필자의 친구 중에는 ‘찌질이’라는 별명의 유약하고 소신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중앙도서관 지하열람실 한쪽 구석 칸에 ‘세계사상전집’ 30권을 쌓아놓고 수업도 가끔 빠져가면서 탐독했다.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는 책을 거의 다 읽고 지하에서 올라왔다. 마치 복수를 위해 무술을 연마하려 입산했다 하산한 무림고수와 같은 품모였다. 눈빛이 자신감과 포부와 여유로 가득 찼다. 누구도 그를 더는 ‘찌질이’라 부를 수 없었다. 고전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다.

고전의 어떤 점이 한 젊은이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 많은 이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겠지만 고전 속에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담겨 있다. 누군가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일상적 관점에서나 실용적인 학문에서는 볼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낯설고 어렵지만, 또 그렇기에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독자는 기존의 자신만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남은 관건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졸업 전까지 주어지는 일곱 번의 방



이진오
중핵교과

내면을 탄탄히 확장한 이들은
각자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학 동안 고전 다섯 권 정도를 읽어보라고 권한다. 이 정도의 책을 ‘저자와 함께 사유하고 논쟁하면서’ 읽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성장해 있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내면을 탄탄히 확장한 이들은 각자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소한 삶을 버텨낼 힘이 쌓인다.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학생도 있지만, 눈에서 반짝 빛을 발산하는 학생이 있다.

트롬본을 연주하는 포스트모던음악과 학생이 그랬다. 내 눈에 그는 황금빛 트롬본보다 더 빛났다. 집 짓기를 배우는 건축공학과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질문하고 더 읽을거리를 물어본다. 가르치는 사람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주는 비타민 같은 순간이다. 한쪽 발에 푸른 깃스를 한 체육학과 학생은 시험 날 하루 빼고 항상 일찍 출석하여 진지하게 경청하고 토론했다. 필자는 어느 수업에서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중 한 개만 선택해 서술하라는 기말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모두 써서 제출한 공학도와 도예과 학생도 있었다. 문장 자체는 아직 손볼 곳이 있었지만, 거기 담긴 진지함과 열정은 두고두고 이 학생들 삶의 자양분으로 또 희망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다.

최근 필자는 학회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동료 대학교수들을 만났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서 문장 이해 능력과 서술 능력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말이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왔다. 이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사실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확인됐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문학적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쓰는 연습이 인류 정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2천 년 넘게 검증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탕처럼 달콤한 디지털기에 폭 빠진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은 이런 연습에서 점점 멀어졌다. 아마도 독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디지털기 사용시간을 줄여 귀한 글을 스스로 읽고 숙고하고 표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고전을 길잡이로 자기와 세상을 성찰하고 꾸려갈 능력을 배양해주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필요한 대책이다. 그런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수업을 듣다가 카톡도 보내고 다른 과목 시험공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생들도 생겼다. 선두로 뺏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됐는데, 자꾸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금덩이를 준다 해도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대학 시절 찌질이가 무림 고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실 30권의 고전 덕이 아니라 그것을 파보기로 마음먹은 그 친구 본인의 결단이었듯 말이다.

두려움이 즐거움이 될 때

변윤희

정치외교학과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하나둘 자신만의 목표를 세운다. 지난해 나의 목표는 수영을 배우는 것이었다. 10년 전, 낯선 나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해져 폐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즐길 줄 알게 된다는 의미였다. 지난봄 시작한 수영은 이제 즐거움을 넘어 일상 속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 내게는 수영과 같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글쓰기다.

호기심 많고 상상하길 좋아하던 아이였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자연스레 글짓기에 적성과 흥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교무실로 따로 부르셨다. “요즘 대학 입시에 논술은 필수인데 이렇게 글 써서 대학 갈 수 있겠니?” 었그제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모의논술고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태 좋아하고 잘한다고 믿었던 것이 모두 부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 후 글을 써야 하는 때가 오면 두려움에 반사적으로 글쓰기를 회피하곤 했다. 5년이 지나 대학 입시생이 되었지만, 당연히 논술 전형에는 도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용기가 생겼다.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글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 쓴 글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심으로 쓴 글입니다.” 잘 써야지만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여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두려움에 가려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본래 글을 좋아했던 진심은 사실 여전했다. 진심을 담아 다시 도전해보았고 당당



히 논술 전형에 합격했다. 글쓰기가 다시 즐겁다고 느껴졌다. 단순히 합격의 의미를 넘어 너무나도 큰 위로였다. 그리고 때마침 신입생 필수교양이던 ‘글쓰기’ 수업을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글 속에서 다시 헤엄칠 발차기를 시작할 기회였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시간

글쓰기 수업의 첫 주제는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은퇴 후 모습, 나를 둘러싼 것들... 나에게 대해 이렇게 넓고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글로 써서 발표하던 경험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했던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했다.

그해 5월의 어느 수업 날이었다. ‘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던 때였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의실 문밖을 나서 잠시 홀로 학교를 둘러보고 오기를 제안하셨다. 천천히 건물을 나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대 길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길을 오르는 한편, 경희여고에서 합성소리가 들린다. 체육대회를 하느라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다. 열여덟의 우리도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해 피구공을 던지던 추억이 떠오른다. 평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던 나무들도 올려다본다. 그새 고개를 든 길은 초록 잎들이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흰분홍 벚꽃이 만개하던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옴을 느낀다.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니 길 위에 그려진 소담한 꽃송이들, 바위 위에 그려진 청개구리도 보인다. 그 사이를 참새 한 마리가 작은 벌레를 물고 분주히 오가고 있다. 그 옆에는 오후의 햇살을 즐기며 산책 중인 할머니 두 분이 있다.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노년의 행복을 나누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진다. 항상 곁에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시간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진심이 통하는 순간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올라온 우리에게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사이에 자아를 잃은 친구들이 많았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후마니타스는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주었다. 글쓰기를 두려워했던 내가, 생각을 글로 조금씩 옮기고 말로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를 할 줄 알게 되니 그 단단함으로 타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여유가 생겼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그 내면의 여유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곳-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는 공단 업무는 걸로 봤을 때는 과도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한번은 체납보험료 관리를 담당하던 때였다. 압류 예고를 받은 중년 여성의 전화였다. 한때는 성공한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었지만 학원 사업이 기울며 남편에게 희귀병까지 왔다. 보험료 징수에만 초점을 맞



변윤희 동문은 후마 글쓰기를 만나 '보물 같은 나의 이야기'를 찾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추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니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적절한 분할납부 계획을 만들어드리고 동시에, 신청 가능한 병원비 지원 제도를 발로 뛰며 알아봐드렸다.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내가 부서를 떠날 때까지 그분은 매달 전화해 납부약속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어느 날은 지난 주말 나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진심이 통하여 유대감을 느끼는 이런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큰 나무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길고 높게 솟은 나무 기둥, 불규칙적인 듯 규칙적으로 뻗은 나뭇가지, 그 끝에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나뭇잎들. 그리고 땅 속 아래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깊은 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 뿌리가 어떤 모양인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길게 뻗어 있는지 알고 있는 건 나무 자신뿐이다. 깊고 어두운 땅 속이라 사실 나조차도 쉽게 알지 못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결국 나의 뿌리를 마주할 수 있다. 나의 이야기를 찾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얽히고설켜 함께 멋진 푸르름을 만들어낼 줄 알았으면 좋겠다. 후마니타스가 여러분의 옆에서 햇빛이 되고 물이 되어 그 과정을 도와줄 것이다. 각자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물 같은 나의 이야기를 꼭 찾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진심과 전심으로 다지는 관계 형성의 초석

양성민

원자력공학과 15
해외 부동산 사업

안녕하십니까. 후배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휘황찬란한 글보다는 저의 신념대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한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성공한 글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담은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물 밖을 벗어난 개구리

“전공 공부하기도 바쁜데 대내의 활동을 굳이 꼭 해야 하나요?” 대학 시절 멘토링 활동 당시 후배님들께서 대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단연코 ‘Yes’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소위 ‘공돌이’입니다. 이과인 저에게 인간과 가치탐색, 시민교육 등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을 넘나드는 교육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공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고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수록 시야가 넓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삼성드림클래스, 한국수력원자력기자단, 총학생회, 대학생발표경진대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국제원자력기구 주관 정책발표 대회 국내 유일 입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쪽지 시험, 과제 등으로 전공과목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도 중요하지만, 너무 전공에만 몰두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자세, 넓어진 시야의 가치를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찾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대학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2만 명이 넘는 정말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규모만큼이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



양성민 동문은 2019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생 경진대회에 참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와 아픔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줄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심 그리고 전심, 훨씬 더 풍요로운 대학 생활

저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을 통해서 인간관계, 협업하는 법에 대해 많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방식을 지양합니다. 토론, 조별 과제 등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학문적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장, 부조장, 조원이 되실 수도 있고 협업의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민폐가 되거나, 무임승차를 하거나, 성실하게 협조하거나, 주도적으로 이끄는 팀원이 되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역할을 해봤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협업 시에는 ‘전심’을 다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학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낼 수 있겠지만 진심과 전심을 다해 형성된 관계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연한 관계가 소중한 관계로 이어지는 값어치, 관계 형성의 초석을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찾길 바랍니다.

전공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곳이라면 교양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라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따라 여러분들만의 대학 생활 첫 그림을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이한길

전자전파공학과 11학번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소속



항상 정답만 바라보던 시절이 지나 대학교에 오니 갑작스레 정답이 없는 인문학이 반겨주었습니다. 정답을 써야 할 것 같고 정답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인문학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인문학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나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2학년까지만 해도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영상 제작이라는 취미에서 시작된 꿈은 방송국에 들어가 멋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꿈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학 전공은 영상제작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영상도 전자신호와 전파로 전달되니 기초지식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교양인 후마니타스에서 수업을 들으며

내 생각을 정리해볼 기회들이 있었고, 막연했던 꿈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재밌어하거나 감동 받은 사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후마니타스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글로 쓰고 나니,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는 거였다는 걸 스스로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스스로 제약을 걸었던 꿈에서 벗어나 제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후마니타스 수업을 기회 삼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마니타스가 앞으로의 생활에 자신감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길 바랍니다.

다양한 기회를 접하느라 다른 사람에 비해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더라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2학년을 마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1학번으로 입학했지만 이미 08학번으로 1학년 생활도 해보고 군대도 다녀온 중고 신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1년 늦었다는 생각에 조금만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때문이었는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인지 2학년 기간 동안 뛰어난 학점도 내 세울 만한 커리어도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꿈이었던 이한길 동문은 방송 촬영 아르바이트, 인턴십, 경연대회 출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찾았다.



늦었다고 겁먹지 말자

2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고민하다 '1년 더 늦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당장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 더 늦어지는 시간이겠지만 저에게 이 1년간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중요한 1년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할 많은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단맛 쓴맛을 느껴보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스텝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와 동기가 있다면 잠시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보세요. 모든 도전이 성공할 순 없지만 기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방송국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안중에도 없던 일반 회사였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에 다닐 때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일단 지원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고 자소서, 인적성,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은 그동안 해온 경험들과 남들과 다른 이력으로 자신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전공은 이과지만 방송 촬영 알바를 했고, 방송국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일반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경험에서 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찾아오는 기회들은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회사에선 일과 별개로 아이디어를 실물로 보여주는 경연대회에 참석해보는 기회도 있었고, 그동안 한 일로 논문을 써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잠시 학생 때를 기억하며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하고 나니 지금은 모두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니면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힘이 닿는 한 많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때로는 후회하는 경험도, 인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생기고 모두 본인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정답이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그 길이 정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에게는 위로가,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에게는 당장 시작할 트리거가,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나 자신과 대화하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마니타스라는 낯선 이름의 인문학을 만나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멋진 사람이 되어보세요. 끝으로 제가 항상 되새기기 위해 품고 다니던 문구를 쓰며 마쳐보겠습니다.

Try to be better than yourself.

과감히 알고자 하라!

최인석

사회학과 14학번
IBK기업은행 재직

2014년 시민교육 수업에 만난 ‘Sapere Aude!’라는 한 문장은 세상을 더 알고 싶었던 신입생의 열정에 기쁨을 부었다. ‘과감히 알고자 하라!’는 뜻을 가진 이 문장은 개인적으로 경희대학교의 교양 대학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새내기 지식인에게 요청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한다.

‘진짜 시민’으로 보낸 시간

나는 대학생으로서의 삶과 동시에 시민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다양한 과목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수업을 들었다. 강의계획서를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 수업이라고 생각되는 과목만 들었다. 설령 내 생각이 완벽하지 않아도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볼 수 있는 수업들은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민교육 강의에서 만난 시민교육 교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에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서도 공약이 실행되는 최전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약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선거 때 이루어졌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총괄 진행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무수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담론들에 대해 마음껏 고민해보고, 나만의 답을 내려보는 진짜 시민으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취업해서 사는 생활과는 맞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가 취업했을 때, 주변 모두가 놀랐다. 1년 정도가 지난 신입 행원이지만, 벌써부터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끝없이 든다. “취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같이 일하는 활동가 선생님들이 해주셨다. 일정 시기에만 해볼 수 있는 도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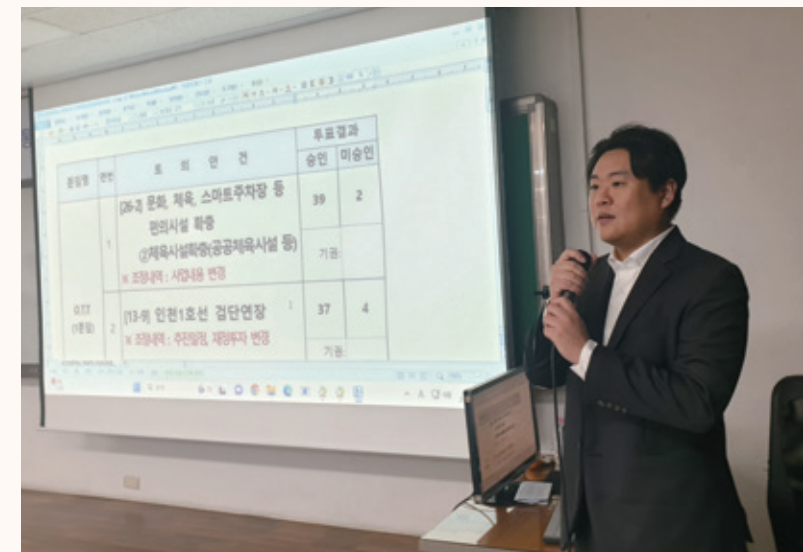
최인석 동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대학생이자 시민활동가로서의 삶을 살며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총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IBK기업은행에 재직하며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도 하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나마 ‘공적인 일을 하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취업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몰랐고, 어디라도 일단 넣어서 경험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하자

그렇게 넣은 1개의 입사지원서가 운이 좋게도 취업과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일단, 과감하게 알려고 했던 행동이 좋은 결과로 다가온 것 같다. 모두가 금융공기업의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은퇴까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경험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DayHolic’은 ‘일상중독자’라는 뜻을 가진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하루하루 사소하지만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사회적 담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과 웃는 것 등 사회에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힘든 수험생활을 마치고, 경희대에서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환영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동안 Sapere Aude! 외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외치고 찾아보고 활용했으면 한다. 여러분의 ‘Sapere Aude!’에 10년 차이 선배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언제나 환영한다. 같이 찾아보자!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의 가치와 교양교육 생태 위기 시대, 시민교육의 지향점 모색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가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은 대학 교양교육 전반, 자기주도적·실천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 교양교육의 심화·확장 등 주제로 교양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포스트 휴먼 시대를 위한 감성 교육: 무한성을 향한 감성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준비하기

한상연 가천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무한성을 향한 감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포스트 휴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오늘날 포스트 휴머니즘은 많은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에는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테크닉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의 트랜스 휴머니즘이 놓여 있다. 트랜스 휴머니즘 맥락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은 근본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이념으로서 전지전능한,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 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꿈의 실현은 무한성에 대한 산술적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죽음의 무한한 반복가능성 및 타자에 의해 무한히 고문당할 가능성을 소멸할 수 없는, 언제나 이미 임박해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으로서 가지게 됨을 뜻한다. 존재론적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적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타자와의 존재론적 관계를 되찾는 것은 가능하다. 타자와의 존재론적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는 비산술적 무한성의 감성을 회복해야 한다. R.슐라이어마허(1768~1834)와 왕양명(1472~1529)은 비산술적 무한성의 감성을 회복할 대책을 제시해주는 두 탁월한 사상가이다.

● 인간다움의 두 갈래 길을 통해 본 교양교육: 다석 유영모의 주체철학과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심상우 강남대학교

다석 유영모는 2008년 세계철학자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로 다수의 철학자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세계적인 사상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독창성은 무엇인가? 다석은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회통시켜 인간다움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다. 다시 말해, 동양문명의 뼈에 서양문명의 골수를 집어넣는 창조적 작업을 진행한 인물이 다석이다. 이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자로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유대 사상의 토대 위에 서구의 종교 및 철학과 회통을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를 통해 그는 유대교 윤리 사상에 기반한 인간다움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했다.

이처럼 두 사상가는 각자 자신들이 속한 세계에 저항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다움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다움을 찾는 두 갈래 길인 주체철학과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징검다리로서 다석 유영모와 레비나스의 사상을 경유했다. 논자는 이들 사상의 경로를 열심히 추적하는 일과 더불어 두 사상가 역시 서로 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를 살폈다.

● 인간다움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교양교육

지혜경 연세대학교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을 닮은 존재의 창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이란 무엇

인지,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담론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중심적인 비교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불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서로 연결된 존재로 본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삶의 터전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인간은 윤회하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불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다른 중생들처럼 업식에 따라 고통받지만, 불성을 가졌기에 언제든지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깨달음을 얻기에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인간을 관계성 속에서 본다는 점과 인간중심적 사유를 극복하려는 점 등 인간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불교는 기존 담론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불교의 인간 이해는 변화의 시기에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름다움’과 ‘사람다움’: 예술작품을 통해서 본 인간다움의 문제

박남희 연세대학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여 혹자들은 미래 시대에 ‘사람의 사라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예단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전혀 다른 생명체의 출현보다는 사유하지 않는, 인간성이 훼손된, 즉 사람다움의 부재를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다움이라는 인간성의 상실이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교육 강화가 중요한바, 이를 위해 우리는 물음과 사유, 사유와 존재, 그리고 존재와 행위를 만들고 생성의 측면에서 예술과 연관하여 사람다움의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교과 학습 실재감 형성을 위한 수업 설계와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김성일 경희대학교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습 환경이 확대·조성되며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수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요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학습 실재감을 다룬 연구이다. 논자는 실제 진행되었던 경희대학의 PBL(project based learning) 교과인 <세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수업 설계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함의를 분석했다. 먼저 수업 구상 단계에서의 교수 실재감 형성, 수업 운영 단계에서의 사회적 실재감 형성, 과제와 평가 단계에서의 인지적 실재감 형성을 위해 어떤 수업 전략이 수립되고 진행됐는지를 알아봤다. 이를 통해서 논자는 학습 실재감이 성공적 학습 결과를 만들어내는 매개효과를 발휘함을 확인하였고, 코로나 시기에 진행되었던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실재감 형성을 위해 분투했던 교수자의 노력과 성과가 대면 수업과도 연계될 것을 기대한다.

● **대학SDGs·ESG 실행을 위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영역의 연계와 책임**

이창언 경주대학교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학 ESD, ESDGs는 지구-국가-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인재 육성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대학이 SDGs를 실행했을 때 얻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본고는 대학 SDGs, 대학 ESDGs의 의미와 대학 SDGs의 확산 요인을 검토한다. 대학 SDGs의 특징인 사회과제 지향·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 협동·학제성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대학 과학기술 연구영역의 역할과 과제뿐만 아니라 SDGs가 채워야 하는 문화나 정신적 가치의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인문·사회과학 연구영역의 책임과 역할을 제안한다.

● **대학에서의 SDGs 교육의 방법과 실제**

이명원 경희대학교

이 논문은 2023년 1학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개설한 <SDGs: 동아시아의 정의, 평화, 연대> 강좌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SDGs 교육의 방법과 실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합의된 세계의 개발 목표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선정한 17가지 의제를 말한다. 이 의제에는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 모두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교육정책 속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SDGs: 동아시아의 정의, 평화, 연대> 강좌는 SDGs의 16번 의제 '정의, 평화, 강력한 제도'를 동아시아의 변경 또는 경계지역의 섬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주 4.3, 타이완 2.28, 오키나와 집단자결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폭력과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검토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과 국가의 제도 구축의 문제를 조명했다. 이 강좌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현장성과 활동성을 중시했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제주, 타이완, 오키나와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의제를 추출하고, 이를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탐구했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계와 주변이 고통의 섬이 아닌 평화와 연대의 섬이 될 수 있는 전망을 모색했다.

● **한국의 쿷시 소설 연구에 대한 일고찰: 「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정선 경희대학교

이 글은 한국에서 아프리카 소설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쓰기'한 쿷시의 『포』에 대한 연구들을 일별해본 것이다. 논의들은 주요 등장인물이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포』에는 크루소가 개척자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프라이데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감추어져 있음이 지적된다. 그러면서도 허가 잘린 모습으로 백인들의 잔혹성을 드러내며, 저항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한편 원전에는 없는 새로운 여성 서술자 수잔과 마지막 장에 누군지 '알 수 없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수잔이 프라이데이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알 수 없는 화자의 서술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부족하다. 『포』에 대한 논의는 주로 탈식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전을 다시 쓴다고 탈식민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탈식민주의의 여러 개념과 전략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아프리카의 백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공모성을 지닌 작가가 구사하는 탈식민주의 전략과 남아공이라는 특수성과 연관된 논의도 필요하다.

● **노동문학의 자기 갱신을 위한 모색들: 구로노동자문학회 출신 시인들의 근작을 중심으로**

장성규 건국대학교

이 글은 구로노동자문학회 출신 시인들인 황규관, 김사이, 송경동의 근작들을 통해 노동문학의 자기 갱신을 위한 모색들을 살펴보았다. 황규관은 과거 노동문학이 지닌 안

과 박,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틀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문학의 대안적 주체성을 탐색한다. 김사이는 과거 노동문학에서 간과되어온 젠더나 이주의 문제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을 직시하며 노동의 범위를 재편한다. 송경동은 스스로의 자기 재현으로서의 문학 개념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문학'을 기획하고 나아가 '거리의 시'를 통해 새로운 노동문학의 상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모색들이 축적됨으로써, 노동문학은 다시금 문학과 현실을 매개하는 미적 매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의 '탈식민-냉전'과 젠더폭력, 그리고 '구연적(口演的) 재현'**

고명철 광운대학교

오키나와와 제주가 직면한 구체적 현실은 서로 다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 일본의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지배력을 행사한 미국이 구축하는 전후 냉전체제를 '탈식민-냉전'이란 중층적 현실로 실감한다. 이 중층적 현실 중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탈식민-냉전'을 정치역사적인 어떤 추상의 담론 차원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 구현된 구체적 삶의 실재로 궁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이루는 문자적 재현의 진실로 온전히 보충할 수 없는, 감춰졌고 멈춰버렸던, 심지어 봉인됐거나 침묵했던 오키나와와 제주 여성의 목소리들을 '구연적 재현'의 문제의식으로 살펴봤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작가 오시로 사다토시의 「저승의 목소리」를, 제주의 경우는 제주의 여성들의 '4·3증언서사'와 양경인의 논픽션 『선창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와 오키나와의 구연적 재현은 동아시아의 '탈식민 냉전' 속 젠더 폭력의 양상과 그 희생을 주목하되, 문자적 재현으로 일괄 수렴되지 않는 역사와 일상과 실감을 포착한다.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5

지난해에도 경희의 도전과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
경희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내 1위다.
특히 연구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 등
연구지원 사업도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결과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교육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



‘학문과 평화’

두 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

열어가는 경희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역대 최고 종합점수 달성

SW 중심대학 2단계 사업 일반트랙,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사업 선정 등

국책사업 잇달아 수주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순위

전년 대비 32계단 올라

경희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주관한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3)’에서 세계 42위, 국내 2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종합점수를 달성한 데 힘입어 세계순위가 전년 대비 32계단 경총 뛰어올랐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경희는 총 17개 목표 중 8개 목표에서 세계 100위권, 6개 목표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경희가 국내 1위로 평가받은 목표는 △빈곤 종식(SDG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불평등 해소(SDG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기후변화 대응(SDG 13) △해양 생태계 보전(SDG 14)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빈곤 종식(SDG 1) 목표에서는 각각 세계 11위, 세계 44위에 올라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경희는 이외에도 △산업·혁신·인프라(SDG 9) 세계 20위 △기아 해소(SDG 2) 세계 52위 △건강과 복지(SDG 3) 세계 63위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세계 66위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세계 75위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세계 8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QS World University

경희가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42위, 국내 2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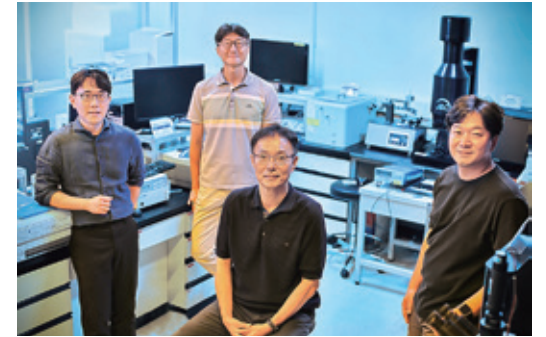
Rankings by Subject)’에서 경희대의 27개 학문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올랐다. 호텔관광, 국제개발, 간호학, 현대언어 등 4개 분야는 세계 100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순위권에 오른 학문 분야는 전년 대비 2개 늘었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순위권에 오른 27개 학문 분야 중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10개이며, 11개 분야는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물리·천문학 분야는 100계단 큰 폭으로 순위가 뛰어올랐다. 지난해 401~450위에서 올해 301~350위를 기록했다. 9.3점 크게 오른 학계 평판도를 비롯해 산업계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H-index 모두 점수가 향상되면서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2023 세계대학 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에서 403위, 국내 종합대 6위를 기록했다. 피인용 세계 상위 1%(HCR) 선정 교원 수의 점수가 오르는 등 연구의 질적 개선을 이뤄낸 결과, 세계 순위가 전년 대비 13계단 상승했다. ARWU는 고등교육정보기관인 상해랭킹 컨설턴시(ShanghaiRanking Consultancy)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 관련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네이처·사이언스 저널 게재 논문 수 지표에서도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이 지표에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온 경희는 전년 대비 0.4점 상승한 5.4점을 기록했다. 경희는 교내 연구자가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시행,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 GRRC 사업 선정 등 연구비 수주

경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 SW 중심대학)’ 2단계 사업의 일반트랙에 선정됐다. SW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해 AI·SW 전문 인재와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기업·사회의 AI·SW 경쟁력을 강화해 진정한 SW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경희대는 1단계 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6년간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하고, SW 교육 인프라와 SW 융합 전공을 확대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주관의 SW 기초교육도 운영했다. 이와 같은 성공적 사업 운영은 이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전우진 교수, 화학공학과 김현기 연구교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이홍섭 교수, 화학공학과 박종욱 교수(연구책임자).

번 2단계 사업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 경희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대 6년간 약 110억 원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ICT 산업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을 융합한 융합보안 고급인재를 양성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목표다. 경희는 ‘무인이동체 특화’ 분야에 선정돼 최대 6년간 정부로부터 55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선정으로 융합보안대학원도 설립한다.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윤정호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윤 교수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12월 까지 과제비 총 4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내방사성 강화 및 경량 우주태양전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과제는 영국의 쾰리대학(University of Surrey)과 ‘한영 Cube-Sat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공동연구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교내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공간이 마련되면 대면적 태양전지 제작용 진공증착 장비가 설치된다. 그 외에도 태양전지 제작용 글러브 박스와 성능 테스트용 솔라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장비가 연구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화학공학과 박종욱 교수)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에 선정됐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정상급 반도체

연구·개발·생산 거점 구축에 나선다.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한 첨단 소자, 소재, 공정, 장비 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GRRC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 자원을 활용해 응용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관·산·학·연 협력 사업이다. 경희대는 매년 경기도에서 5억 원, 용인시에서 1억 원, 기업에서 5억 7천여만 원을 최대 6년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반도체 관련 소재의 응용과 제품 개발을 연구해온 교수 14명을 포함해 54명의 연구진이 참여 기업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

전자공학과 이응규 교수를 필두로 한 공동연구진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양자컴퓨팅 활용 혁신 사례를 창출해 양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을 조기에 선점해 산업적 파급 효과를 확산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수요처와 공급처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뤄야 한다. 경희대는 사업 주관기관으로 핵사솔루션과 미국 노터데임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포토닉스 혁신 설계 및 고기능성 광학필름 개발’을 주제로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전자공학과 이응규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김상혁 교수,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정성호 교수, 스페인어학과 황수현 교수 등 5명의 교원이 참여한다. 물리, 재료, 전자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해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의과대학 이인선 교수와 기계공학과 김중우·김진균 교수 공동연구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디지털융합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한의 기술 기반의 첨단과학 기술과 지식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령화를 비롯한 국가적 난제와 현대 의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지원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팀은 사업을 통해 최대 5년(3+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 융합(XR)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다.

스마트팜과학과가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팜 온실이 신축될 예정이다. 신축될 스마트팜 온실은 약 110평 규모의 첨단 유리 온실로



스마트팜과학과가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신축 온실은 약 110평 규모의 첨단 유리 온실로 최첨단 센서와 독립 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된다.

두 개의 재배 구역과 실험준비실, 기계실, 공조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두 가지 재배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작물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계획됐고, 구역별 최첨단 센서와 독립적인 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된다.

미술대학 나형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이 지원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의 ‘한국 전통 수목 채색화 제작 데이터’ 생성 분야에 선정됐다. 지난해 같은 사업의 ‘한국 전통 수목화 화풍별 제작 데이터’ 분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지난해 사업을 함께 수행했던 경희 출신 스타트업인 ㈜올빅넷과 한국딥러닝(주)도 함께한다.

원자력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로 구성된 융합연구단이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차세대 원전 기반 탄소중립 융합대학원’ 과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지능형 에너지 융합전공’이 신설되고,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 전공에서는 차세대 원전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실증·사업화해 나갈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형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17대 총장에 김진상 교수 선임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경희대학교 17대 총장으로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경희학원은 2024년 1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학 신입 총장 선임을 의결했다. 새 총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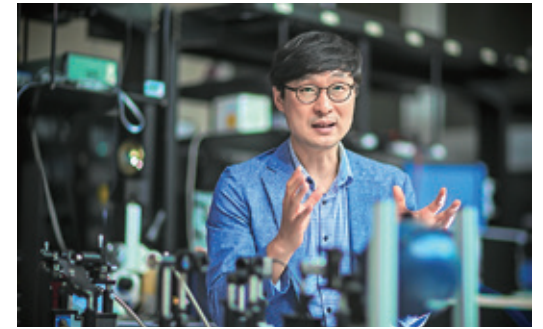
김 교수는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부터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이 강력한 우주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대외적으로 학술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취업진로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행정 역량도 쌓았다.

학술의 탁월성 추구, 연구력 향상으로 이어져

생체의공학과 박기주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음향 그물(Acoustic net)’을 혈관 내 원하는 곳에 비침습적으로 생성해 혈관에 존재하는 혈전과 색전을 잡아둔 후, 집속초음파로 혈관 내벽 손상 없이 정밀 파쇄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 결과는 음향공학 분야(Acoustics)의 JCR 랭킹 1위 저널인 <Ultrasonics Sonochemistry(IF=9.336)>에 게재됐다.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연구팀이 앞에서는 사라지고 옆에서만 보이는 열복사 구조를 설계했다. 열복사는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성 제어는 난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 성과는 미국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나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ACS Nano(IF: 18.027, JCR 상위 3.74%)>에 온라인 게재됐다. 응용물리학과 조진우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상용화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미래연구실)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전자정보대학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유재수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과 전자공학과 이종욱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를 위한 전하 극성 변조 대전물질 및 소자의 출력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 대전물질의 새



응용물리학과 김선경 교수 연구팀이 앞에서는 사라지고 옆에서만 보이는 열복사 구조를 설계했다.

로운 전하 극성 변조 기술 개발을 통해 마찰대전 프로세스 규명에 기여하고, 소자의 출력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 분야 저명 학술지 <Nano Energy(IF: 19.069, JCR 상위 5.21%)>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선정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융복합 에너지 자율형 다기능 센서 플랫폼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유재수 교수 연구팀(제1저자 전자정보융합공학과 Wang Tian 박사과정생)이 중국의 상뤄대학교(Shangluo University) Li Kang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수계 아연금속 전지 상용화를 이끌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수계 아연금속 전지의 실제 적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 저명 학술지인 <Energy Storage Materials(IF=20.4)>에 게재됐다. 유재수 교수는 “긴 수명과 안정성을 가진 이차전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민성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홀로그래픽(Holographic)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했다. 관련 연구성과는 <Nature Communication>(IF: 17.694) 14호 1권에 게재됐다. 일반적인 홀로그램은 레이저와 같은 간섭성 광원을 이용해 만들어진



전자정보대학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유재수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과 전자공학과 이종욱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를 위한 전하 극성 변조 대전물질 및 소자의 출력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간섭무늬를 통해 획득하지만 레이저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살아있는 생물이나 특히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특수 조명 없이 자연광 기반으로 홀로그래프를 촬영할 수 있는 홀로그래픽 카메라 기술을 활용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획득한 홀로그래프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홀로그래픽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했다.

기계공학과 최동휘 교수 연구팀은 압축 좌굴 현상에 기반한 4차원 프린팅 공정을 통해 ‘떨어지는 물방울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기 발전기’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s(IF=29.4)>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로 관련 특허를 2건 출원했고, 국제학술대회인 ‘NANO KOREA 2023’에서 대상 수상을 포함해 ‘2023 하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최동휘 교수는 “프린팅 기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도출됐다. 앞으로도 관련 우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공학과 박종욱 교수가 서울대학교 박수영 교수 연구

팀과 공동연구 끝에 OLED 성능을 한층 끌어올릴 신규 소재를 제시했다. 실리콘 원소를 분자 내 삽입해 발광 효율을 높였고, 세계적 수준의 청색 구현 효율을 기록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소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색 발광 효율을 기록했고, OLED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신규 소재 후보군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도 출원했다. 이번 연구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16.6)>에 게재됐다.

화학공학과 오진영 교수와 정보전자소재공학과 강성준 교수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발광 소재를 개발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소재 기술을 확보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다음 포퓰터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연구로 중요한 기술적 개선을 이뤘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선 신축성 있는 발광 반도체 소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4.980)>에 게재됐다. 이번 성과는 경희대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연구팀이 이뤄낸 성과라 뜻깊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화학공학과 박범준 교수 연구팀이 콜로이드를 활용한 광집계(Optical laser tweezers) 기술로 반데르 발스(Van der Waals) 상호작용 중 극성-무극성 분자 간 상호작용을 세계 최초로 예측했다. 이 연구 결과는 탁월성을 인정받아 저명한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 (IF=16.6)> 최신 호에 게재됐다. 광집계는 빛으로 나노 입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로, 콜로이드 및 바이오 분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박범준 교수 연구팀은 콜로이드 입자를 활용해 분자 동작을 이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반데르 발스 상호작용 중 하나인 드바이 힘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결과여서 호평을 받았다.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이정태 교수, 기계공학과 김두호 교수 연구팀이 리튬-황 배터리의 상용화 실마리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IF=29.698)에 게재됐다. 이정태 교수는 “연구를 진행한 모든 구성원이 경희대 출신이어서 개인적으로 더 뜻깊은 성과”라며 “양 연구실 간 학생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제안되고 있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약학대학 김남중, 이종길, 인경수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관여 단백질인 인산화 p38 MAPK를 선택적으로 분해해 병을 개선할 수 있는 화합물인 PRZ-18002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화합물을 알츠하이머병 모델 마우스의 비강에 투여해 해당 마우스의 공간 추론과 인지능력 향상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Chemical Knockdown of Phosphorylated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as a Novel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ACS Central Science(IF=18.728)>에 게재됐다.

의과대학 박은정·김진배 교수 연구팀이 지하철 역사에서 포집한 먼지의 호흡기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평가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지표를 제안했다. 박은정 교수는 “지하철 먼지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평가할 때 크롬, 철, 몰리브덴, 지르코늄, 바륨의 노출 농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Subway station dust-induced pulmonary inflammation may be due to the dysfunction of alveolar macrophages: Possible

contribution of bound element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학술지 <Toxicology>에 온라인 게재됐다.

정보전자소재공학과 강성준 교수 연구팀이 스프레이 코팅 기술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 소자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 학술지 <ACS Applied Nano Materials(IF=6.14)>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양자점 박막 개수에 따라 계면 및 광학적 특성 변화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발광 다이오드와 포토다이오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화학과 이제승, 임성열 교수 공동연구팀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비금속, 탄소 기반 촉매 합성법을 개발했다. 연구는 ‘Durable N-doped carbon electrocatalysts derived from NH₃-activated coffee waste for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 학술지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IF=4.598)>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개발한 촉매의 상용화를 위해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커피 기반 촉매에서의 반응 메커니즘을 다양한 분광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 기반 비백금 촉매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라며 후속 연구를 소개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 등 연구 업적·공로 인정받아

유전생명공학과 정기홍 교수가 진행한 ‘3세대 잠종벼 개발을 위한 융성불임벼 생산 기술’ 연구가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정기홍 교수는 “연구 성과 중 우수성과로 뽑혀 영광이다. 경희대 부임 이후 좋은 연구 시설과 다양한 지원으로 13년 동안 관련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건축학과 천장환 교수가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천장환 교수는 서울공예박물관을 공동 설계했는데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구현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천장환 교수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감리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남겼다.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가 ‘2023년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고령친화산업 유공자 포상은 보건복지



건축학과 천장환 교수가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Fellow 선정자의 연구실에는 경희 Fellow 현판이 부착돼 선정 교원의 성취를 알린다.

교내 공간 효율화 및 강의실 책걸상·교육용 기자재 개선

2023학년도 하계 방학 때 양 캠퍼스 곳곳의 공간과 기자재가 변화됐다. 서울캠퍼스는 편의 휴게 시설이나 자습 공간 등 학생 편의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들을 추려 공간을 변화시켰다. 경영대학, 정경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호텔관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청운관) 등이 우선 선정됐고, 정경대학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공간들은 하계 방학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경영대학 오비스홀 3층 로비는 학생 편의 휴게시설로 변화했다. 기존의 ATM기와 의자 등이 있던 공간에 벽을 설치해 통로와 휴게공간을 분리했다. 치과대학 치의학과 B4층 로비는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한의과대학은 학생 자습 공간과 동아리실을 구축했다. 호텔관광대학 로비는 편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자기주도 학습실도 개설했다. 청운관 복도에도 휴게 및 자습 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강의실의 책걸상을 교체하며 유리 칠판을 설치했다.

국제캠퍼스는 노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구성원이 많았던 일체형 책걸상 교체가 주된 작업이었다. 일체형 책걸상은 관리의 편리함으로 많은 교육기관에 설치됐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체형에 적합하지 않아 불편을 유발해왔다. 국제캠퍼스 총 86개 강의실에 비치됐는데, 하계 방학에 46개 강의실 2,252개의 책

부의 주최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된다.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는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공과대학 김윤혁 교수가 대한기계학회가 수여하는 2023년 바이오공학상(KSME Distinguished Leadership Award in Bioengineering)을 받았다. 대한기계학회는 1968년에 설립 허가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기계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기계 분야 미래 원천 융복합 기술 선도와 바이오공학 분야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희 Fellow는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을 제고하고, 학문적 성취를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연구와 교육 분야 각 1명이 선정됐다. 연구 분야에는 대학원 스마트관광원 조미희 교수가, 교육 분야에는 식품생명공학과 김우기 교수가 선정됐다. 경희 Fellow는 대학 홈페이지

2023학년도 하계 방학 동안 양 캠퍼스 공간과 기자재 개선이 진행됐다. 사진은 오비스홀 로비 개선 조감도.



경희학원이 9월 21일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 42주년을 맞아 평화의 전당에서 '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했다. 기념 대담에서 인류의 실존을 위협하는 기존 문명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역사 문명의 틀을 만들어갈 의식과 정치가 무엇인지 논의했다.

걸상을 교체했다. 향후 나머지 강의실의 일체형 책걸상도 교체할 계획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멀티미디어관)의 기자재도 교체해 강의 편의성을 높였다. 빔프로젝터 7대와 전자교탁 22개, 대형 LED TV 12대 등을 설치했다. 기자재의 노후화는 강의 수월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캠퍼스 곳곳의 시설도 보수했다.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의 농구장 바닥 보수 공사를 시행했고, 우정원에는 장애인 경사로 개선공사를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생명과학대학, 멀티관, 공과대학 등의 실형실도 일부 개설했다. 국제캠퍼스는 향후 중앙도서관의 통합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PBF, '평화 혹은 붕괴, 번극점에 선 지구사회' 주제로 개최

2023년 PBF는 '평화 혹은 붕괴, 번극점에 선 지구사회(Peace or Collapse: Planetary Society at an Inflection Point)'라는 대주제 아래 열렸다. 9월 21일 오전 9시부터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 대담과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행사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으며, 웹캐스트(pbf.khu.ac.kr)를 통해 생중계됐다.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세계평화 주간'에는 서울·국제캠퍼스 일

원에서 관련 행사가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세계평화의 날 42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류사회의 실존 위기를 넘어설 평화의 마음, 정치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인류 의식을 다시 요청했다. 이어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 대담이 '평화 혹은 붕괴, 번극점에 선 의식과 정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희학원 이사장 조인원 박사, 닉 보스트롬 영국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겸 경희대 Eminent Scholar가 패널로 참여해 대담을 펼쳤다. 기념 대담 전에는 닉 보스트롬 교수가 'AI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지구사회로 가는 길: Post SDGs를 향하여'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도 열렸다.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유엔 NGO 협의체(CoNGO) 의장, 아쓰후미 요코이 일본 오카야마대 부총장, 야오 야오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소프트웨어센터 이사가 발표하고, 토론자로 초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공동회장, 최동주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세계평화 주간에는 캠퍼스 곳곳에서 UNAI ASPIRE 경희 평화 포럼, 제42차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지구시민부스, 생태시네마 토크 콘서트,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세계 평화 카드뉴스 공모전 등이 열렸다.

경이로운 목련과 사자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다

전공 역량 강화로 각종 대회 수상 잇달아
독립연구 결과로 해외 저널리츠 상 받아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이것이 경희대가 추구해온 대학의 참모습이다. 경희는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에도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탐색하며 더 많은 미래를 만들어나갔다.

국제학과 학생 팀, 유엔 국제행사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

국제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20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후속 행사인 'Green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산하 기관인 아이베카 국제 가상 학교 교육 센터(IVECA International Virtual Exchange of Classroom Activities, 이하 아이베카)의 주최로 개최됐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쓰레기 관리를 주요 목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성과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갈등 사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20학번)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적 대응 외에도 개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던 와중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문제를 공부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에 동참해 뿌듯하다"고 밝혔다. 유엔의 국제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이번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이들은 개인적인 동기부여와 진로 방향성 설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20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후속 행사인 'Green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했다.



경희대 학생들이 '2023 LINC 3.0 캡슐디자인 경진대회' 대상과 우수상, '2023 LINC 3.0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 장려상을 받았다. (사진 왼쪽) 조예진(국제학과 19학번), 김흥수(미디어학과 20학번) 학생이 후마니타스칼리지 독립연구를 수행해 헬스케어 저널리즘 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생 보도 분야에서 우수 헬스케어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사진은 학생들이 게재한 기사 갈무리. (사진 오른쪽)

캡슐디자인 경진대회 대상·우수상 휩쓸어

경희의 산학협력 교육 성취가 대외 수상으로 이어지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계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Trainee(이지훈, 남기중, 윤정민(이상 18학번), 전세준(19학번), 지도교수: 이원구 교수)와 SPA월드(박성재, 최주형(이상 18학번), 지도교수: 김종우 교수)가 '2023 LINC 3.0 캡슐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의상학과 오자윤(19학번) 학생은 '2023 LINC 3.0 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경희대 학생들이 캡슐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대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주관한다. LINC 3.0 사업단은 캡슐디자인 활성화와 학생들의 실전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험·실습 재료와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과 단위의 기자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조예진·김흥수 학생, 독립연구 통해 캐나다 언론에 기사 게재 학생 보도 분야 우수 헬스케어 저널리즘 수상

조예진 학생(국제학과 19학번)과 김흥수 학생(미디어학과 20학번)이 헬스케어 저널리즘 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생 보도 분야(2022 Awards for Excellence in Health Care Journalism)에서 우수 헬스케어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작성한 기사는 캐나다의 저명 언론 <The Globe and



Mail>에 게재됐고, 2022 캐나다 저널리스트 협회 학생 우수 후보자로 등록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은 "1년간 고생했던 순간이 빛을 발하는 기분이다. 수상을 기점으로 노인 빈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다. 지도교수인 유소영(Cynthia SohYoung Yoo) 교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축하하며,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 기술에 귀중한 경험을 얻은 만큼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과대학 이민준·박준우·신서원 학생, 독립심화학습 결과물로 논문 게재

한의과대학 이민준(17학번), 박준우(18학번), 신서원(16학번) 학생이 천연물 기반 감염병 치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병증 개선에 있어 고려인삼, 감초 등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민준·박준우 학생의 연구 결과는 'Target-Specific Drug Discovery of Natural Products against SARS-CoV-2 Life Cycle and Cytokine Storm in COVID-19'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 학술지인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JCR 상위 10% 이내)>에 게재됐고, 신서원 학생의 연구 결과는 'Panax ginseng as a potential therapeutic for neurological disorders associated with COVID-19; Toward targeting inflammasome'라는 논문으로 <Journal of Ginseng Research(JCR 상위 10% 이내)>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독립심화학습' 강의를 통한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독립심화학습' 강의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 범위를 넓히는 연구를 진행한 한의과대학 재학생 팀. (사진 왼쪽) 대학부 로켓경진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중앙동아리 'TUSI'. (사진 오른쪽)

중앙동아리 'TUSI' 대학부 로켓경진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받아

중앙동아리 TUSI는 전국 항공우주 과학경진대회 대학부 로켓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들은 '전반적인 아마추어 고체로켓 제작 기술의 정형화'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학생들은 "로켓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로켓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따라와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1985년 창립된 TUSI는 고체로켓 제작 및 구현을 주요 과제로 활동하는 학술동아리다.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 팀, 강원 어촌 마을 활성화로 강원도지사상 받아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팀이 제안한 '일삼공 프로젝트(일상 속 삼척의 삶을 유쾌하게 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강원도지사상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경희 교육이 사회로 확대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찬비, 전세연(시각디자인학과 19학번), 김나영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교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구체화되는 결과물을 보며 뿌듯했고, 좋은 결과까지 도출해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일삼공 프로젝트는 강원 어촌마을인 대진항의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스마트팜과학과 재학생팀,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스마트팜과학과 재학생팀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 4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식물 위주의 원예생명공학과에서 IT, 데이터분석, 공학 관련 융합 커리큘럼을 도입한 스마트팜과학과로 학과가 변경되며 나타난 결과라 의미가 크다. 김예진 학생(스마트팜과학과 21학번)은 "대회 주최 측이 기대한 농업로봇 자동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한 번의 조작만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되도록 각각의 알고리즘을 하나로 통합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다른 팀과 다르게 통합에 성공했고,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응용수학과 양유경 학생, SCIE 저널에 1저자로 참여

응용수학과 양유경 학생(19학번)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E 카테고리 1위 저널에 게재됐다. 이 연구를 이끈 응용수학과 박준표 교수는 "학부생이 연구의 핵심 단계에 참여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며 축하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Evolutionary dynamics in the cyclic competition system of seven species: Common cascading dynamics in biodiversity'라는 논문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Chaos, Solitons and Fractals(IF=7.8)>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현재 연구를 넘어 순환 경쟁 거대 집단역학계에 대한 수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희 청년 해외 개척단' 첨단기술 공개 현장을 누비다

'경희 청년 해외 개척단(Global AFRO!)' 사업은 LINC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실선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학생을 1:1로 매칭해 학생은 실전 경험을, 기업은 학생 역량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와 연계해 관·산·학 연합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6월 두 건의 전시에서 각각 1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첫 번째 전시는 6월 12일부터 3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미국수도전시회(AWWA ACE23)이었다. 미국수도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 산업 전시회다. 학생들은 국내 참가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 경쟁사, 소비자의 기업 현황을 공부해 기업별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직접 관람객과 소통하고, 바이어 미팅 주선, 통역 외에도 기업과 제품의 현지화 전략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활약에 참가기업도 만족감을 표했다.

두 번째 전시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일삼공 프로젝트'로 강원도지사상을 받은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 팀. (사진 왼쪽)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4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스마트팜과학과 재학생팀. (사진 오른쪽)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2023(Viva Technology 2023)이었다. 이 전시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자, 개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기술을 공유한다. 올해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메타버스, 기후 기술이었고, 174개국 28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서 한국은 '올해의 국가'였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전시회 중심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IR 데모데이,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 참가 전 매칭 기업 분석과 시장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품, 경쟁사, 소비자 분석을 진행하고, 해외 잠재고객을 위한 활동 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참가기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해외 바이어에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다.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윤희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18학번), 최은서(국제학과 19학번) 학생은 VIVA Tech 2023 K-startup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됐다.

경희 재학생 20명이 두 건의 해외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도왔다. 이들은 LINC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경희 청년 해외 개척단(Global AFRO!)' 사업에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미국수도전시회(AWWA ACE23), 비바 테크놀로지 2023 참가자.



경희에서 이룬 꿈과 희망 나눈다 학생, 교수, 동문 기부 행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구성원 모금 운동
기부 프로젝트, 다양한 기부 잇달아

‘경희 가족’의 기부 행렬이 학교를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기부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구성원 모금과 기부가 대표적이다.

지구 공동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서울·국제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구성원 모금 운동으로 모은 기부금 약 1,500만 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접경 지역에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으로 수백 채의 건물이 무너지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재난에 대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2월 6일 지진 소식을 접하고, 이를 도울 방법을 고심해 2월 10일(금)부터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이재백 총학생회장은 “경희 구성원 모두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이라는 지구 공동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줄 방법을 고민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금을 통해 세계시민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고 모금 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국제캠퍼스 문정식 총학생회장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22학년도 우크라이나 모금과 울진·삼척 산불 재난 지원 모금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이번 모금도 순조롭게 준비했다”면서 “기부금 모금을 공동으로 진행해, 하나 된 경희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운동은 경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경희대는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 울진·삼척 산불재난 지원을 위한 경희대 모금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후배 사랑, 모교 발전 위한 다양한 기부

올해 50회를 맞이한 건축학과 졸업전시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렸다. 전시회 개막식 및 50주년 기념식에서는 후배 건축학도를 위한 여러 동문의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기금 약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왼쪽) 동문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천원의 점심’ 행사 진행으로 청운관 학생 식당은 많은 학생으로 붐볐다. (사진 오른쪽)



후원이 이어졌다. 왕정환(건축공학과 82학번) 건축사무소 아라그룹 대표이사는 건축학과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약정했다. 기부금은 졸업전시회 준비를 비롯한 학생 연구 활동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건축학과-건축공학과 동문회는 사단법인 경희건축인재육성후원회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의 장학금 5천만 원을 약정했다. 매년 학과별 5백만 원씩 장학금을 후원한다.

호텔관광대학은 김철원 교수와 그의 박사 제자 3명이 총 1억 3백만 원을 기부했고, 경영대학원은 원우회장과 원우회 사무총장이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철원 교수는 지난 하반기에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 그는 정년 퇴임을 기념해 기부를 결정했고, 제자들이 그의 뜻을 따랐다. 제자 3명은 모두 컨벤션 산업 분야의 창업자이다. 박진현(㈜프리미어플랜)·민경익(㈜엠앤씨커뮤니케이션)·황성민(오픈디오씨주식회사) 대표가 그들인데, 이들의 기부는 창업 기금으로 지정됐다. 후배들이 같은 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치과대학은 기부 문화가 정착된 대표적 단과대학이다. 2023년 6월 15일과 19일에도 발전기금 전달식과 약정식이 개최됐다. 15일에는 치과대학 23회(89학번) 동기회 35명이 총 1억 1천만 원을 기부했고, 19일에는 (주)덴티움이 매년 2억 원씩(연구기금 1억 원, 실습기자재 현물 1억 원) 5년간의 기부를 약정했다. (주)덴티움은 치과대학 80학번 정성민 동문이 회장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여 년간 경희대에 약 4억 7천만 원의 현금과 현물을 기부해왔다.

간호과학대학 87학번 동기회 17명이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약정했다. 이번 발전기금 약정은 간호과학대학 87학번 동기회가 정연희 학장 임명을 축하하고 간호과학대학의 발

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성희 교수는 “간호과학대학 동기회는 매년 만나며 우애를 다져왔다. 동기가 학장을 맡는 일을 계기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도루코 창업자 고(故) 탁시근 회장의 손녀 3인이 최근 작고한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도루코 주식 1만 7,300주를 경희대학교에 현물 기부했다. 익명으로 주식을 전달해온 기부자들은 경희와 특별한 연고가 없다. 부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처를 찾던 중 경희학원의 가치와 철학, 미래비전에 공감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경희대와 기부자 가족은 고인의 이름을 딴 ‘탁홍열·김명자 인류사회공헌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문 기부금 기반 ‘천원의 점심’ 행사 진행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초 대학생에 대한 지원책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경희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이은 ‘천원의 점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소식을 접한 동문들의 자발적 기부로 꾸러졌다. 한군태 총장이 동문과의 만남에서 대학 소식을 전하며 천원의 아침밥이 화두가 됐다. 이봉관 동문(상학과 66학번, 서희건설 회장), 박종복 동문(경제 76학번, SC제일은행장), 허상준 동문(법학과 82학번, KD운송그룹 사장), 문주현 동문(회계학과 83학번, MDM회장), 차정훈 동문(중어중문 83학번, 한국토지신탁 회장) 등이 사업의 의미에 공감하며 선뜻 기부 의사를 밝혔다.

1949 ~ 2024

학문과 평화의

75년

6

2024년 개교 75주년을 맞이한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원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왔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고
1981년에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후 고등교육과
세계평화 운동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뿌리를 내렸다.
경희는 개교 70주년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 전통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희의 장학정신 :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등용문’에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숲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는 교시탑이 눈에 들어온다. 교시(校是)는 학교를 세운 근본 정신, 다시 말해 장학정신이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학원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51년에 출간한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동물도 아니고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독자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했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서 본능과 이성을 통제하고, 적자생존의 ‘자연 규범’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문화 규범’을 지키며 인간적이며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지구공동사회(GCS: Global Common Society)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핵심 내용이다.

경희학풍과 전통 : 학문과 평화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1949년 개교한 이래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근본 사명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희는 창학 초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출산하고 선도했다.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뒷날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실천적 원리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 물질문명에 병든 인류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한 ‘밝은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조영식 박사가 1975년에 펴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경희는 세계평화운동에도 앞장섰다. 1981년 11월 30일, 경희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매년 9월 21일)이 사상 최초로 제정된 일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경희대학교 교훈과 교육 방침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피란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때는 1951년 5월 18일이다. 신홍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홍전문학관을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경희는 1949년 5월 18일을 대학 설립일로 정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는다.

1951년 8월 20일, 부산에서 새롭게 신입생을 맞이하며 경희는 교육 목표와 교훈, 교육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경희정신과 경희의 상징물 :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장학정신과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경희 구성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희정신’이 필요하다. 경희정신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요약된다. 이 경희정신은 교화(校花)인 목련, 교수(校獸)인 웃는 사자로 상징된다.

‘웃는 사자’를 경희의 상징으로 택한 이유를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자가 오직 그 힘과 용맹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될 뿐이다. 그 용맹한 사자가 웃는 사자일 때 그의 기상은 인자함과 덕이 조화된 외유내강의 참다운 만수의 왕이 될 것이다.”

‘목련’을 경희의 교화로 제정한 날은 1970년 개교기념일(5월 18일)이다. 목련은 매서운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 가장 먼저 희고 소담한 꽃을 피워 다가올 봄소식을 전한다. 역경을 이겨내는 진취적이고 선구자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꽃이다. 또한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목련의 특성은 경희의 공동체 정신과 닮아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경이로운 경희'

1949년 2년제 초급대학에서 출발한 경희대학교는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

1949~1953 : 경희의 탄생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피란지 수도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다. 경희의 모태가 된 신홍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홍전문학관이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당시 신홍초급대학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한 가인가 상태였다. 강의실조차 없는 '천막학교'에 불과했다.

조영식 박사는 부산역 앞 동광동에 본부 건물 1동,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2동을 신축하고 1951년 8월 20일 신입생을 맞이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인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정식 초급대학 인가를 취득했다.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교육 내용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자 입학 지원하는 학생이 몰려들었다. 3개 학과, 150명 정원으로 출발했으나 6개월 만에 학생 수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52년 12월 9일 신홍초급대학은 2년제에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다. 학교를 인수한 지 1년 7개월 만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큰 위기가 닥쳤다. 1953년 1월 9일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공들여 지은 동광동 교사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제 신홍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설립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재기했다. 부산 동대신동 산기슭에 더 넓은 교지를 마련하고 착공 2개월 만에 새 교사를 건립했다.

동대신동 교사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도 조성됐다. 당시 피란지 부산에서 독립된 도서관 건물과 운동장을 갖춘 대학은 경희가 유일했다.

1953년 3월 30일 동대신동 교사에서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날 경희의 1회 졸업생 45명이 배출됐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희의 '등용문'을 나선 동문은 30만 명에 이른다.

1954~1959 : 경희의 성장

3년에 걸친 6·25전쟁이 휴전되자 조영식 박사는 대학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했다.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산중턱에 올라 경희의 미래를 내다보며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서울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힌다.

경희의 제1기 마스터플랜은 10여 년에 걸쳐 추진됐다(괄호 안은 완공 연도). 코린트 양식의 본관 석조전(1956), 높이 12미터 폭 14미터의 아치형 정문 '등용문'(1955),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1968), 학술 경희의 산실 문리대학관(1958), 국제 규모의 400미터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1962),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해 한국 스포츠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체육대학관(1957),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무대 노천극장(1959) 등이 주요 건축물이었다.

캠퍼스 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2월 28일, 경희는 종합대학교 승격이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경희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문화 창달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은 국내 모든 대학이 해마다 대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시는 1956년 10월 23일 열린 경희의 제1회 대학제(학원제)이다. 또한 학내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55년 5월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했으며, 1957년 10월 대학의 소리(VOU, Voice of University) 방송국을 개국했다. 교내 학술잡지 <고황>은 1957년 5월에 창간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1960~1969 : 경희의 발전

1960년 3월 1일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희궁에서 따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희(慶熙)’는 행복, 형상, 객체, 양(陽)을 뜻하는 경(慶)과 맑음, 올바름, 지성, 주체, 음(陰)을 뜻하는 희(熙)를 결합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 즉 일원론적 우주관을 함축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이듬해인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춘 ‘경희학원’이 설립됐다. 경희의 장학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현장에서 경희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경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1965년의 동양외과대학 인수·합병은 경희대학교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이 신설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35개국의 대학 총장 105명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언론사 기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IAUP는 조영식 박사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 지성의 모임으로, 1965년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고등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IAUP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듬해인 1969년 전 세계 20개국 253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국의 경희’에서 ‘세계의 경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1970~1979 : 경희의 성숙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는 ‘의과학 경희’의 새 전통을 쌓아 올렸다. 경희의 의료기관 설립은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당시 동양 최대인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국내의 대학병원들은 350~500병상 수준이었다. 경희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희의료원 개원은 국내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며 한의학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동양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세대 한의학자’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창출했다.

1972년 9월 9일 경희 의료진은 동서양 의학 협진으로 침술 마취에 의한 맹장 수술에 성공했다. 침술 마취 수술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네 번째 사례였지만,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복수술에 성공한 것은 경희가 처음이었다. 제3의학에 대한 경희의 의지는 뒷날 세계 최대의 <동양의학대사전>(전12권) 발간으로 이어졌다. <동양의학대사전>은 편찬 작업에 착수한 지 7년 만인 1999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출간됐다.

1970년대 한국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제1기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경희는 타 대학에 비해 안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질적인 성숙과 도약을 이뤄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가르치는’ 창의적 학술문화가 경희에 정착된 것도 이때부터다.

1979년 10월 20일, 경희는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로마클럽은 1968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단체로, 1972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최초로 제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한 바 있다. 나흘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경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1980~1989 : 경희의 도약

1979년 국제캠페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1970년대 내내 경희는 단과대학 및 학과 증설이 거의 불가능했다. 경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조영식 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캠퍼



1979년 국제캠퍼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스 신설이 가능해졌다.

조영식 박사의 원래 구상은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해 당분간 ‘분교’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경희는 ‘하나의 경희’를 위한 편제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하나의 경희’에 대한 30년간의 꿈과 노력은 2011년 8월 24일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교육부는 양 캠퍼스의 통합을 승인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1990~1999 : 경희의 세계화

1993년 8월 27일, 조영식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자들의 집단 유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월간 전국을 뒤흔든 ‘한약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살신성인이었다.

그해 3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반 약국에서도 한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되자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3,000여 명의 학생이 제적 또는 유급의 위기를 맞았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조영식 박사의 총장직 자진 사퇴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1999년 10월 10일, 경희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999서울NGO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그에 앞서 조영식 박사는 1997년 10월 유엔총회 초청 연설에서 “세계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NGO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후 부트로스-갈리, 코피 아난 등 역대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유엔 승인 아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99서울NGO세계대회는 107개국 1,360개의 NGO 활동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NGO 대회였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6일간 토론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지구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전 세계 시민사회는 경희의 제안에 따라 ‘서울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NGO세계대회는 경희의 평화정신을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의 제언이었다.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21세기 경희의 미래

경희대학교는 21세기로 접어들어 개교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았다. 개교 60주년을 준비하며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했다.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존엄의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오랜 성찰 끝에 경희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문화세계 창조’의 창학정신,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2009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비전과 목표를 대내외에 밝혔다. 그간의 경이로운 성과를 토대로, 개교 80주년 이전까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한다는 것이 경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다.

이를 위해 2011년 경희는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해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의료기관, 행정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통괄기구 글로벌봉사팀(GVT, Global Volunteer Team)을 결성해 사회공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이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지구적 존엄’ 구현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21세기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의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UN 세계평화의 날 경희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매년 9월 21일 전 세계에서 평화 염원하는 축제 거행
매년 9월 지구적 난제 해결 위한 국제학술회의
'Peace BAR Festival(PBF)' 개최

매년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축제가 거행된다. 그러나 이 뜻깊은 기념일이 경희의 제안과 노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 마지막 날. 연단에 오른 조영식 박사가 담대한 제안을 했다.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

'세계평화의 날' 최초로 제안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의 지성들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사상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대통령의 도움으로 유엔에 안건을 제출했다.

당시 세계는 동·서 양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그 탓에 안건 통과 여부가 매우 불확실했다. 조영식 박사는 뉴욕에 머물며 유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외무장관, 언론사 발행인, 노벨상 수상자, 로마 교황 등 전 세계 지도급 인사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캠페인'도 펼쳤다. 그때 발송한 편지는 무려 2,000통이 넘었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981년 11월 27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스마일 키타니 의장은 표결을 사흘 뒤로 미뤘다. 몇몇 국가가 안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영식 박사도 다수결 통과를 원치 않았다.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라면서 만장일치를 주장했다. 표결이 미뤄진 사흘 동안 조영식 박사는 반대 의사를 밝힌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호소했다.

'30년보다 더 길었던 3일'이 지나고, 마침내 11월 30일. 개회를 선언한 유엔총회 키타니 의장이 입을 열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 평화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키타니 의장은 사회봉을 세 번 두드리고 만장일치 통과를 선언했다.

총회가 끝난 뒤 키타니 의장이 조영식 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석학들로부터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1,000통이 넘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그토록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계평화의 해 맞아 미국과 소련, 평화의 메시지 전달

유엔총회는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도록 권했다(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으로 정해졌고,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됐다). 경희대학교는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현재는 'Peace BAR Festival'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에 의해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된 1986년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서로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는 그해 11월 양국이 핵무기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 후 양국 간의 군비경쟁이 완화됐으며,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져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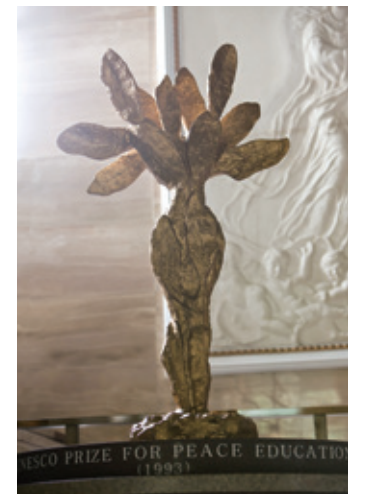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세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의지는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9월 25일 열린 개원식 겸 입학식에는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 지도자와 평화 관련 기관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평화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실천역량을 갖춘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교수 1명당 학생 3~4명의 비율로 엘리트 교육을 강화했다. 매 학기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경희가 주도해온 세계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학술과 실천을 결합한 인턴십을 의무화하고 국내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학생들을 파견해 경험을 쌓게 했다. 현재 졸업생 3명이 유엔의 정직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화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이 세계 어느 도서관에도 없었던 것이다. 곧바로 <세계평화대백과사전>(영문판) 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하고, 40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전4권) 초판은 1987년에 간행됐다. 개정·증보판은 개교 50주년인 1999년에 완간됐다. 전8권, 총 3,8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사전 편찬 작업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2011년,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는 유엔과 공동으로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UNAI의 제안으로 성사된 국제회의는 그해 9월 1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UNAI는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유엔공보처(UNDPI) 산하 기구다. 국제회의의 주제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였다. 경희대 조인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희의 모습을 소개했다.

학생, 시민도 참여하는 지구촌 평화축제, Peace BAR Festival(PBF)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 이후 매년 9월 21일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개최해온 Peace BAR Festival(PBF)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했다. 세계적 싱크탱크, 국내외 석학, 시민사회와 연계해 기후 위기를 비롯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며 목표를 새로이 했다.

예컨대 2018년 9월에 개최된 PBF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을 주제로,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WAAS),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UN, CoNGO)과 함께 그해 4월 판문점 선언이 불려온 한반도의 봄을 '문명 전환'의 맥락에서 접근하면

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구현하는 철학과 가치를 모색했다.

첫날에는 '사라지는 빙하: 기후변화와 세계평화(A Farewell to Ice: Climate Change and Global Peace)'를 주제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강연에 이어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 미원석좌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와담스 교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온 기후변화 분야 석학이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강연 및 원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인류 평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조명했다. 폴란드에서 온 아담 미치니크(Adam Michinik)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 편집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 강연을 했으며, 조인원 총장과 피터 와담스(Peter Wadhams)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원탁회의를 가졌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 '기후행동' 촉구 성명서 발표

UN 세계평화의날 제정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PBF 2021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문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PBF 2021에는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폴 R. 엘리히 스탠퍼드대 교수, 아비 로브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 한스 요하임 쉘른후버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희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구 문명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 이후 매년 9월 PBF가 열리는 한 주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은 기념식 외에 기념 공연,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전시회, 경희 피스 로드(Peace Road) 탐방, 치유 프로그램 체험 행사, 평화 주제 설치미술 전시, 평화의 날 기념 백일장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2023년에는 지구적 위기의식에서 출현하는 전환문명의 향방을 탐색했다.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를 중심 의제로, 현대문명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의식, 정치, 지식, 일상의 위기로 읽고 전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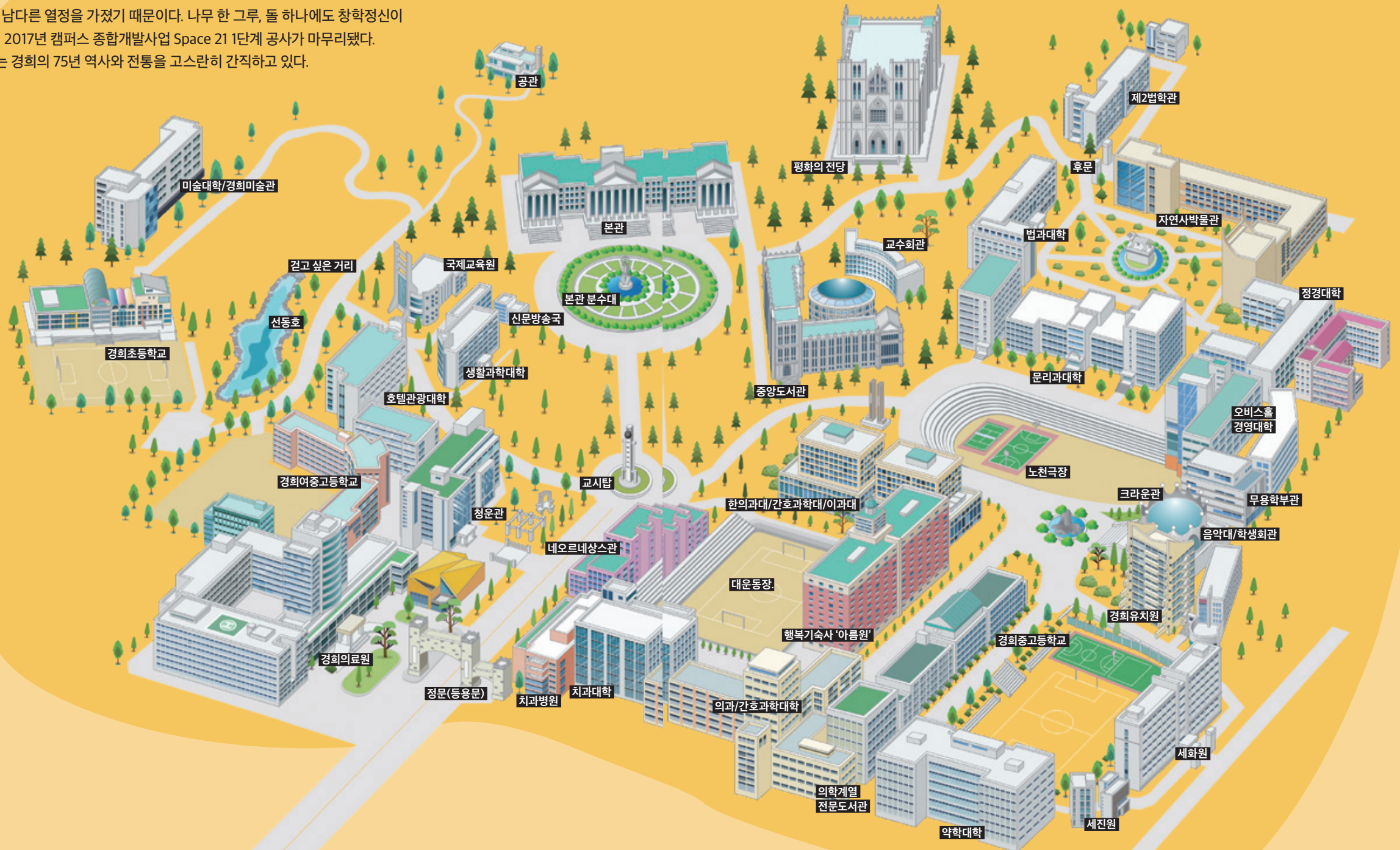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출발부터 남달랐다. 1953년 국내 대학 최초로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각종 건물과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섰다. 서울캠퍼스에 숲이 많은 것은 경희대가 설립 초기부터 자연 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도 창학정신이 깃들어 있다. 2017년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캠퍼스는 경희의 75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경희는 1980년대 경기도 용인 신갈호수 일대에 제2 캠퍼스를 건설하면서 '국제화 경희'의 기반을 다졌다. 50만 평에 달하는 녹지 위에 중앙도서관, 네오르네상스문을 비롯해 외국어, 예술·체육, 이공 계열, 국제대학원 등이 들어섰다. 2017년 Space 21 1단계 사업의 첫 결실로 종합체육관 '선승관'을 개관한 국제캠퍼스는 Space 21 2단계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

-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TEL 02-961-9311, 9339~40
FAX 02-961-9305
khsa0036@khu.ac.kr
-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TEL 031-201-3401~4
FAX 031-201-3409
khwc5871@khu.ac.kr

-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401호
연구소 TEL 02-961-2398
소장실 TEL 02-961-2397
실천교육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글로벌인문융합연구센터

- **글쓰기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206B호
TEL 02-961-0991
국제캠퍼스 우정원 B106호
TEL 031-201-3429
- **글로벌봉사팀**
서울캠퍼스 TEL 02-961-2213
국제캠퍼스 TEL 031-201-3581

경희의 상징



대학 휘장

경희를 공식 대표하는 상징 요소.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상을 표현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경희를 의미한다.



워드 마크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상승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로 형상화했다. 자유로운 소통, 나눔의 실현, 무한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실천적 선구자를 상징한다.



교화 | 목련

경희의 교화는 목련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아름다움, 너그러움, 하나 됨의 미덕도 지니고 있다. 웃는 사자와 더불어 목련은 경희의 문화적 서사를 표현한다.



상징 동물 | 웃는 사자

당당한 모습이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웃는 사자', 바로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웃는 사자는 강인함과 관용을 의미한다. 사자 캐릭터 마크에는 햇불과 비둘기의 모습도 담겨있다. 창의성과 진취성, 평화의 정신을 담았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